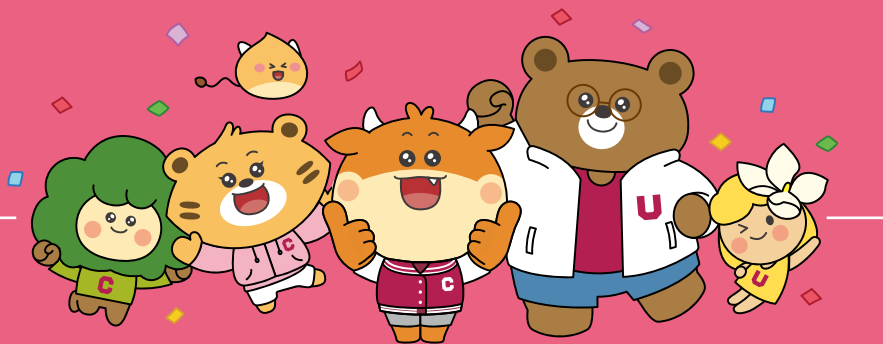




충북대학교 대학입학전형 가이드북



AAA — All About Admissions

충북대학교 대학입학전형 가이드북



Copyright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본 책자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으며, 책자의 일부 혹은 전체를 허락없이 변경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본 책자의 내용에는 집필자의 개인 의견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충북대학교의 공식 의견이 아닙니다.



대학입학전형

- 2023학년도 대입전형 변화와 특징
-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 한 눈에 보는 대학입학전형
-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

입학정보

- 대학입학 용어사전
- 자주묻는 질문
- 온라인 플랫폼 강화에 따른 입학정보 탐색방법

전문가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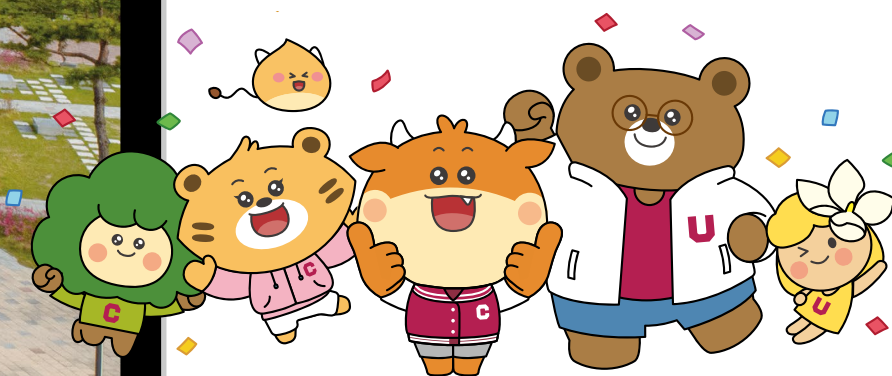
- 고1,2 학생의 진로 및 학업설계 방법·방향
- 2024학년도 이후 대입환경 분석
- 미래 직업세계 변화와 진로·직업 준비





진리·정의·개척의 건학 이념으로 함께 여는 역동적 미래

충북대학교는 학문의 발전을 선도하고,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민주 시민을 양성하며, 국가와 사회의 미래 개척에 헌신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대학으로서 국가와 인류 사회의 발전이라는 교육의 보편적 목표 실현에 진력하면서, 충북 지역에 자리 잡은 학문공동체로서 개성 있는 지역 사회의 문화 창달에 헌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CONTENTS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
충북대학교
대학입학전형 가이드북

※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진리, 정의, 개척, 건학의 이념으로 이어온 충북대학교
이제는 함께하는 역동적인 미래를 열다.



CHAPTER 01

I. 대학입학전형

- 8 2023학년도 대입전형 변화와 특징 | 충주중산고 김주석
- 18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 32 한 눈에 보는 대학입학전형
- 34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



CHAPTER 03

III. 전문가 칼럼

- 70 고1,2 학생의 진로 및 학업설계 방법·방향 | 보은고 배정숙
- 76 2024학년도 이후 대입환경 분석 | 대화고 최승후
- 84 미래 직업세계 변화와 진로·직업 준비 | 한국고용정보원 김동규



CHAPTER 02

II. 입학정보

- 38 대학입학 용어사전
- 44 자주묻는 질문
- 54 온라인 플랫폼 강화에 따른 입학정보 탐색방법



Copyright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본 책자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으며,
책자의 일부 혹은 전체를 허락없이 변경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본 책자의 내용에는 집필자의 개인 의견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충북대학교의 공식 의견이 아닙니다.

충북대학교는 학문공동체로서
개성 있는 지역 사회의
문화 창달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All About Admissions



함께 여는
역동적 미래
충북대학교



충북대학교 대학입학전형 가이드북은
수험생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I. 대학입학전형

2023학년도 대입전형 변화와 특징	8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18
한 눈에 보는 대학입학전형	32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	34



2023학년도 대입전형 변화와 특징

충북 충주중산고등학교 교사 **김주석**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먼저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과의 차이점을 살펴본 뒤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특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022학년도에는 수시 이월 인원이 작년 대비 약 15% 정도 감소하였다. 특히, 인서울 및 수도권 대학의 수시 이월 인원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는데, 서울 42개 대학은 지난해(2021학년도) 3,033명에서 올해(2022학년도) 1,747명으로 1,286명(42.4%)이, 수도권 42개 대학은 2,791명에서 2,311명으로 480명(17.2%)가 감소하였다. 또한 지방소재 130개 대학의 경우는 지난 2021학년도 3만 5,205명에서 3만1,160명으로 4,045명(11.5%)이 줄어들었다. 특히, 서울 15개 대학 중심으로 고려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에서 수시 이월 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정시 확대의 기조와 함께 대학평가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한 결과로 생각된다. 그리고 특히 지방 대학은 작년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 그리고 추가모집까지 진행하였음에도 대학 충원율을 채우지 못해 어려운 상황을 겪었는데, 올해(2022학년도)에는 전체적인 수험생 수가 늘었다고는 하나 지역 수험생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일부 대학에서 다시 충원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 상황을 통해 2023학년도와 앞으로의 대입 변화를 예상해보고자 한다.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

2023학년도의 대입 일정은 전체적으로 전년도와 비슷하다. 다만, 수시모집 전형 기간은 다소 짧아졌다(92일→88일). 또, 충원합격 발표 마감 시간이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개별 통보는 18시까지로 단축되었다. 그리고 2022학년도 대입에서는 정시모집의 미충원 등록 마감 이후 다음 날부터 추가모집을 실시하였으나 2023학년도 대입에서는 3일 뒤인 2023년 2월 20일부터 실시한다.

[2022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주요일정]

구분		2023학년도	2022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2022.09.13.(화)~17(토) 중 3일 이상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2022.07.04.(월)~08(금) 또는 2022.09.18.(화)~17(토)중 3일 이상	2021.09.10.(금)~14(화) 중 3일 이상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2021.07.05.(월)~09(금)
	전형기간	2022.09.18(일)~12.14(수)(88일)	2021.09.15(수)~12.15(수)(92일)
	합격자발표	2022.12.15(목)까지	2021.12.16(목)까지
	합격자등록	2022.12.16(금)~19(월)(4일)	2021.17(금)~20(월)(4일)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2022.12.26(월) 합격자발표 18:00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	2021.12.27(월) 21:00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20시까지, 20~21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
정시모집	수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2022.12.27.(화)	2021.12.28.(화)
	원서접수	2022.12.29(목)~2023.01.02(월) 중 3일 이상	2021.12.30(목)~2022.01.03(월) 중 3일 이상
	전형기간	가군 2023.01.05(목)~12(목)(8일)	2021.01.06(목)~13(목)(8일)
		나군 2023.01.13(금)~20(금)(8일)	2022.01.14(금)~21(금)(8일)
		다군 2023.01.25(수)~02.01(수)(8일)	2022.01.22(토)~29(토)(8일)
	합격자발표	2023.02.06(월)까지	2022.02.08(화)까지
	합격자등록	2023.02.07(화)~09(목)(3일)	2022.02.09.(수)~11(금)(3일)
추가모집	정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2023.02.16.(목) 합격자발표 18시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	2022.02.20(일) 합격자발표 21시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20시까지, 20~21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
	정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2023.02.17(금)	2022.02.21(월)
	원서접수·전형일·합격자발표·등록	2023.02.20.(월)~28(화) ※ 합격 통보 마감:2022.02.28(화) 18시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함.	2022.02.22.(화)~28(월) ※ 합격 통보 마감:2022.02.27(화) 21시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20시까지, 20~21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함.
등록 마감		2023.02.28(화)	2022.02.28(월)
수능 시행일		2022.11.17(목)	2021.11.18(목)
수능성적 통지일		2022.12.09(금)	2021.12.10(금)
수시 학생부 작성 기준일		2022.08.31(수)	2021.08.31(화)
정시 학생부 기준일		2022.11.30(수)	2021.11.30(화)



2023학년도 전형유별 모집인원

2023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통해 주요 특징을 살펴보자. 먼저 모집인원을 권역별, 전형유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모집인원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수도권 정시모집의 증가와 비수도권의 수시 모집인원 증가이다. 2023학년도에는 전체 모집인원 349,124명 중 수시 모집인원이 272,442명으로 전체 모집인원 대비 78.0%에 달한다.

[모집시기별 모집인원]

구분	수시모집	정시모집	합계	전년 대비 증감	
				수시	정시
2023학년도	272,442명 (78.0%)	76,682명 (22.0%)	349,124명	10,064명 (2.3%)	-7,493명 (-2.3%)
2022학년도	262,378명 (75.7%)	84,175명 (24.3%)	346,553명	-4,996명 (-1.3%)	4,102명 (1.3%)
2021학년도	267,374명 (77.0%)	80,073명 (23.0%)	347,447명	-	-

이와 같은 결과는 수도권에서는 정시모집 인원이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정시의 비율을 늘릴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수시 모집인원을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래의 표를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도 소폭으로 수시모집 인원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비수도권 모집시기별 모집인원]

구분	권역	수시모집	정시모집	합계	전년 대비 증감	
					수시	정시
2023학년도	수도권	85,220	46,562	131,782	1,395	825
		(64.7%)	(35.3%)		(-0.0%)	(0.0%)
	비수도권	187,222	30,120	217,342	8,669	-8,318
		(86.1%)	(13.9%)		(3.8%)	(-3.8%)
	합계	272,442	76,682	349,124	10,064	-7,493
		(78.0%)	(22.0%)		(2.3%)	(-2.3%)
2022학년도	수도권	83,825	45,737	129,562	-6,443	6,153
		(64.7%)	(35.3%)		(-4.8%)	(4.8%)
	비수도권	178,553	38,438	216,991	1,447	-2,051
		(82.3%)	(17.7%)		(0.9%)	(-0.9%)
	합계	262,378	84,175	346,553	-4,996	4,102
		(75.7%)	(24.3%)		(-1.2%)	(1.2%)

두 번째, 전체 모집인원이 2022학년도보다 2,571명 증가한다. 참고로 2022학년도 대입에서는 2021학년도 대비 학생 수가 약 9,500여명이 늘었지만 2023학년도 대입에서는 다시 16,400여명이 줄어든다. 이러한 현상은 충원율에 어려움을 겪는 몇몇 대학에 정원 미달 사태를 불러올 수 있으나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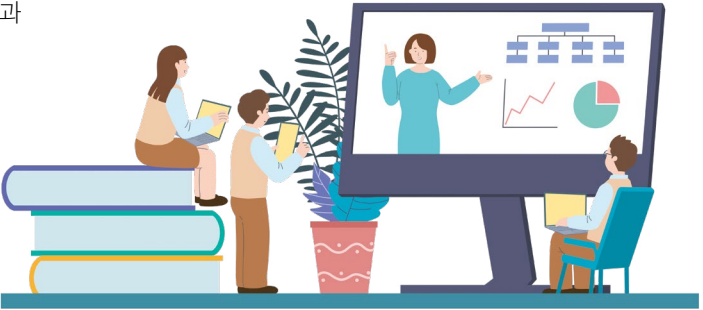
[2023학년도 수시/정시 전형유형에 따른 모집인원]

모집시기	전형유형	모집인원		전년대비 증감
		2023학년도	2022학년도	
수시	학생부위주(교과)	154,464 (56.7%)	148,506 (56.6%)	5,958 (0.1%)
	학생부위주(종합)	81,390 (29.9%)	79,503 (30.3%)	1,887 (-0.4%)
	논술위주	11,016 (4.0%)	11,069 (4.2%)	-53 (-0.2%)
	실시/실적위주	21,014 (7.7%)	18,817 (7.2%)	2,197 (0.5%)
	기타	4,558 (1.7%)	4,483 (1.7%)	75 (-0.0%)
수시소계		272,442	262,378	10,064
정시	수능위주	69,911 (91.2%)	75,978 (90.3%)	-6,067 (0.9%)
	실기/실적위주	6,150 (8.0%)	7,470 (8.9%)	-1,320 (-0.9%)
	학생부위주(교과)	252 (0.3%)	201 (0.2%)	51 (0.1%)
	학생부위주(종합)	313 (0.4%)	347 (0.4%)	-34 (-0.0%)
	기타	56 (0.1%)	179 (0.2%)	-123 (-0.1%)
정시소계		76,682	84,175	-7,493
총합계		349,124	346,553	2,571

위 표를 보면 2023학년도에서도 전체 전형유형 중 학생부위주(교과)>학생부위주(종합)>수능위주>실기/실적위주>논술>기타 순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특히 수시에서는 학생부위주(교과, 종합)에서 86.6%로, 정시에서는 수능위주 91.2%로 선발한다. 특히 전년 대비 비수도권의 경우는 학생부위주(교과)에서 5,261명으로 다소 선발 인원이 늘었으나, 학생부위주(종합)은 1,768명을 줄여 선발한다. 그리고 정시의 경우 수도권 중심으로 수능위주 모집인원과 선발 비율(1,361명, 1.3%)이 소폭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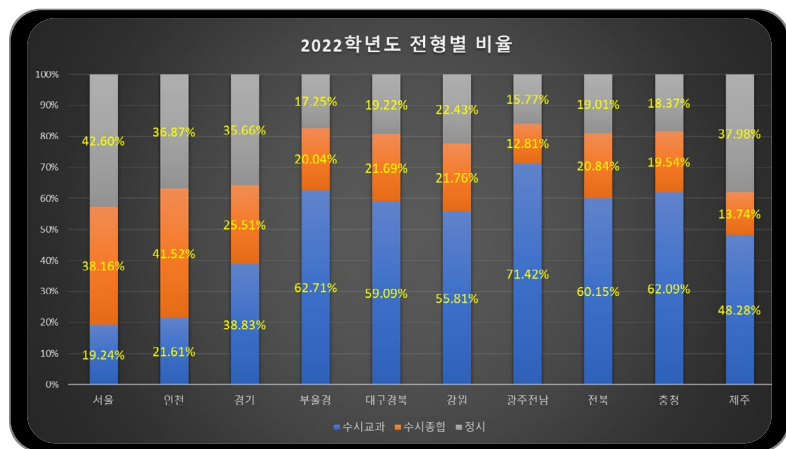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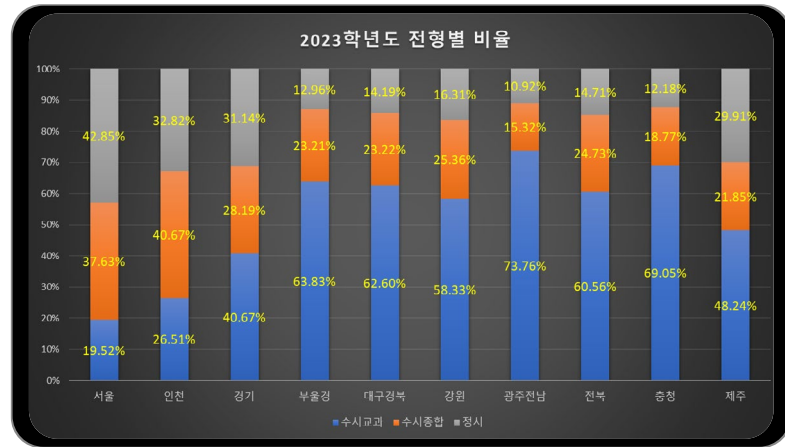
논술위주전형은 2022학년도와 같이 36개 대학에서 작년과 같이 선발하고 있으며 모집인원은 11,016명으로 전년 대비 53명이 감소하였다. (홍익대(세종) 신설, 서경대는 논술을 실시하지만 학생부교과 60+논술40으로 교과전형에 포함)





2023학년도 전형유형별 모집인원을 그래프를 통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22학년도 모집인원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권역별로 전형유형에 따른 모집인원의 변화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2022~2023학년도 전형유형에 따른 권역별 모집인원]



셋째, 고른기회 특별전형 모집비율이 증가하였다. 고른기회 특별전형의 경우 정원 내 선발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2021학년도에 47,606명을, 2022학년도에는 53,546명을, 2023학년도에는 55,279명을 선발한다. 2023학년도 정원 외 선발 인원은 2022학년도 대비 19명이 줄어든 24,252명이다.

2023학년도 지역인재전형은 작년보다 1개교가 늘어난 93개교에서 모집인원 442명이 늘어난 21,235명을 선발한다. 다만, 충청권에서는 작년 대비 904명이 감소한 4,643명을 선발한다.

[학년도별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

구분	대학 수	모집인원	총모집인원 대비 비율(%)
2023학년도	93개교	21,235명	6.1%
2022학년도	92개교	20,793명	6.0%
2021학년도	86개교	16,521명	4.8%

넷째, 특기자 특별전형의 경우는 수시모집 시기에 문학, 미술, 수학/과학, 체육, 어학, 컴퓨터/IT/SW 등의 분야에서 선발한다. 모집인원은 3,511명에서 3,527명으로 16명이 증가하였고, 정시모집에서는 220명에서 177명으로 43명 감소하였다.

다섯째, 수도권 지역균형선발은 수도권 총 42개 대학에서 12,543명을 모집하는데 주로 학생부위주(교과)전형으로 선발한다. 수도권 대학 중 가톨릭대, 경인교대, 서울교대(일부), 서울대는 종합전형으로 717명을 선발한다. 경희대(교과), 서강대(교과), 서울대(교과, 종합), 서울대(종합), 성균관대(교과), 연세대(교과)는 재학생만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서울 소재 11개 대학 지역균형선발전형 모집인원 및 지원자격]

대학명	인원	수능최저	추천인원	대학명	인원	수능최저	추천인원
서울대	565	O	2명(재학생만)	한양대	331	X	11%(졸업생 가능)
연세대	523	X(면접40)	5%(재학생만)	중앙대	505	O(출결10)	20명(재수생까지)
고려대	871	O(서류20)	4%(졸업생 가능)	경희대	555	O(정성30)	5%(재학생만)
서강대	172	O(비교10)	10명(재학생만)	한국외대	373	O	20명(6수생까지)
성균관대	370	O(정성20)	10%(재학생만)	서울시립대	196	O	8명(졸업생 가능)
이화여대	400	X(면접20)	제한 없음(재수생)	계	4,861		

※비교=비교과(출결, 봉사 등), 정성=정성평가, 면접=면접평가

마지막으로 국가거점대학의 모집인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3학년도 국가거점국립대(9개교) 모집인원]

대학	수시모집					정시모집					모집 인원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실기/실적	정원외	가	나	다	기타	정원외	
강원대	2,257	776	—	139	300	431	569	243	131	—	4,846
경북대	1,281	1,207	457	164	447	802	735	—	3	10	5,106
경상국립대	1,468	1,037	—	53	229	243	309	—	—	—	3,339
부산대	1,076	1,092	390	211	352	852	698	—	11	—	4,682
전남대	2,178	990	—	159	415	515	423	43		—	4,723
전북대	1,905	539	—	143	397	649	624	—		—	4,257
제주대	918	364	—	76	328	—	358	423	36	—	2,503
충남대	1,719	535	—	43	415	613	561	—	128	12	4,026
충북대	1,074	745	—	7	305	420	524	—	38	4	3,117
계	13,876	7,285	847	995	3,188	4,525	4,801	709	347	26	36,599

※정시모집 기타의 경우는 실기/실적위주 등이 포함된 인원임.

국가거점국립대의 중 강원대가 2022학년도 대비 모집인원이 그대로이고 경북대가 소폭 줄어든 반면, 다른 대학의 모집 인원은 늘어났다. 또한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인원이 확대되었으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전반적으로 다소 완화되었다. 상세한 내용은 대학별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

국가거점대학은 사립대와 비교할 때 합리적인 수준에서 등록금을 책정하고 있으며 장학금 수혜율이 높고, 학생들을 위한 복지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학생들의 선호가 높다.



2023학년도 의·약학계열 입학전형의 특징

대학이 전체적으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는 추세이나, 의예/치의예/수의예/약학/한의예과는 여전히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높게 설정하고 있다. 수학능력시험의 과목구조가 개편됨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수학에서 미적분과 기하를, 탐구에서는 과탐 과목을 지정하고 있는 대학이 많다. 그리고 의예과(충북대, 충남대, 순천향대, 건국대, 을지대, 건양대 등), 약학과(충북대, 충남대), 한의예과(대전대, 세명대), 수의예과(충북대, 충남대)등에서는 학생부위주(교과, 종합)전형으로 지역인재전형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대의 경우는 정시모집에서도 지역인재전형으로 일부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2023학년도 의학계열 전형별 모집비율]

구분		2023학년도			2022학년도		
		수시	정시	합계	수시	정시	합계
의예과 (39개교)	인원	1,817	1,198	3,015	1,784	1,189	2,973
	비율	(60.3%)	(39.7%)	—	(60.0%)	(40.0%)	—
치의예과 (11개교)	인원	360	270	630	359	272	631
	비율	(57.1%)	(42.9%)	—	(56.9%)	(43.1%)	—
한의예과 (12개교)	인원	425	290	715	431	293	724
	비율	(59.4%)	(40.6%)	—	(59.5%)	(40.5%)	—
수의예과 (10개교)	인원	304	192	496	307	190	497
	비율	(61.3%)	(38.7%)	—	(61.8%)	(38.2%)	—
합계	인원	2,906	1,950	4,856	2,881	1,944	4,825
	비율	(59.8%)	(40.2%)	—	(59.7%)	(40.3%)	—

약학대학은 2022학년도부터 2+4체제에서 6년제로 전환하여 전국 37개 대학이 학부에서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2022 대입에서는 많은 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경향을 보였고, 경쟁률 역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 약학대학 신입생 선발인원]

지역	대학(명)	인원
서울	경희대(40), 덕성여대(80), 동덕여대(40), 삼육대(30), 서울대(63), 성균관대(65), 숙명여대(80), 이화여대(120), 중앙대(120)	638
경기	가톨릭대(30), 동국대(일산)(30), 아주대(30), 차의과학대(30), 한양대(ERICA)(30)	150
인천	가천대(메디컬)(30), 연세대(송도)(30)	60
강원	강원대(50)	50
대전·세종·충남	고려대(세종)(30), 단국대(천안)(30), 충남대(50)	110
충북	충북대(50)	50
대구·경북	경북대(30), 계명대(30), 대구가톨릭대(50), 영남대(70)	180
부산·경남	경상국립대(30), 경성대(50), 부산대(60), 인제대(30)	170
광주·전남	목포대(30), 순천대(30), 전남대(60), 조선대(75)	195
전북	우석대(40), 원광대(40), 전북대(30)	110
제주	제주대(30)	30
합계		1,743

2023학년도 교육대학 입학전형 특징

다음으로 교육대학교 입학전형에 대하여 알아보자. 우선 전국 교육대학교의 모집시기별 모집인원은 다음 표와 같다.

[교육대학교 모집시기별 모집인원]

지역	대학	모집 인원	수시모집				정시모집			
			교과	종합	논술	소계	가군	나군	다군	소계
서울	서울교대	356	50	145	—	195	—	161	—	161
	이화여대	39	9	14	—	23	—	16	—	16
경기	경인교대	600	—	340	—	340	—	260	—	260
강원	춘천교대	321	—	172	—	172	—	149	—	149
충남	공주교대	354	—	205	—	205	—	149	—	149
충북	청주교대	287	—	162	—	162	—	125	—	125
	한국교원대	111	2	64	—	55	45	—	—	45
대구	대구교대	384	—	214	—	214	—	170	—	170
부산	부산교대	359	—	201	—	201	—	158	—	158
경남	진주교대	319	—	179	—	179	—	140	—	140
광주	광주교대	327	—	219	—	219	—	108	—	108
전북	전주교대	285	—	104	—	104	—	181	—	181
제주	제주대	114	62	11	—	73	—	41	—	41
합계		3,856	123	2,030	—	2,153	45	1,658	—	1,703

2023학년도 초등교육(학)과는 10개 교육대학과 이화여대, 제주대, 한국교원대에서 정원 내 3,856명과 정원 외 323명을 모집하여 전체 4,179명을 모집한다. 2022학년도와 비교하면 정원 내 8명과 정원 외 4명 등 전체적으로 12명이 증가한 것이다. 정원 내 기준으로 수시에서 2,153명(55.84%), 정시에서 1,703명(44.14%)을 모집하여 수시 비율이 2022학년도에 비하여 소폭 상승하였다. 정시 모집의 경우, 한국교원대만 가군에서 45명을 모집하고, 12개 대학은 나군에서 1,658명을 모집한다.

초등교육과의 경우 수시모집은 특성상 대부분 학생부종합전형이며, 단계별 전형으로 면접을 실시한다. 학생부교과전형은 서울교대(학교장추천), 이화여대(고교추천), 제주대(교과일반전형)이 있다. 그리고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대학으로는 경인교대(학교장추천전형), 이화여대(미래인재전형), 제주대(학생부교과전형), 춘천교대(교직적·인성인재전형)이 있고 춘천교대의 경우는 모든 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다수의 대학에서 적용하지 않지만 서울교대(학교장추천, 교직인적성우수자), 춘천교대(모든전형), 전주교대(교직적성우수자), 이화여대(미래인재), 제주대(교과일반학생전형)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시 서울교대 외에는 수능 각 영역에서 선택 과목 간의 구분은 없고 수학 영역에서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구분이 없으며 사탐과 과탐도 구분하지 않는다. 다만 정시의 경우는 수학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할 경우 가산 점수를 주는 대학도 있다. 과탐의 경우도 부산교대는 5%, 춘천교대는 3%의 가산점수를 반영한다. 또한 지역인재전형은 서울교대, 경인교대, 이화여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에서 일부 인원을 선발한다.

교대는 모집단위 특성상 대부분의 전형에서 인·적성면접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면접을 실시하고 있다. 교대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평소에 충실한 학교생활을 통해서 면접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즉, 교과 수업 중 토론과 발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과 외 활동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공감과 소통 능력을 배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대에 지원할 때는 면접일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대학에서 발표되는 모집 요강을 통해 전형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023학년도 이공계특성화대학의 대입전형 특징

이공계특성화대학인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으로서 수시모집 6회 지원, 정시모집 3회 지원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예외 대학이다. 이 대학들은 학과 구분 없이 학부 형태로 학생을 모집하여 입학 후 일정한 기간 학업을 이수한 후 전공을 선택한다. 이 대학들의 경우 정시 선발 인원은 매우 적기는 하나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능 과목에 응시해야 한다.

위 대학 중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2022학년도에 신입생을 처음으로 선발하였으며, 에너지시, 에너지 신소재, 차세대 그리드, 수소에너지, 환경 기후 기술 5개 연구 분야 특화 대학이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에너지 공학 단일학부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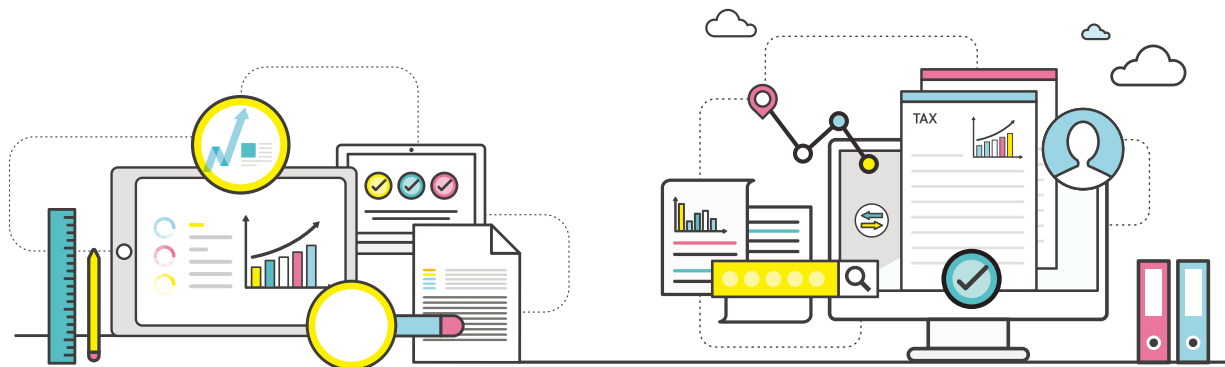


사관학교 및 경찰대학의 입학전형

다음으로 사관학교 및 경찰대학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대학들은 2023학년도 시행계획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따라서 2022학년도 모집 요강을 기준으로 입학전형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추후 반드시 모집요강을 확인하기 바란다.

사관학교와 경찰대학은 수시·정시로 모집시기를 구분하지 않으며, 대학 자체 시험·신체검사·면접·체력·내신 및 수능 등을 활용하여 선발한다. 1차는 국어, 영어, 수학을 통해 지필평가를, 2차는 면접과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추가적으로 학생부, 수능 등을 반영하는 등 다양한 평가 요소를 통해 선발하고 있다. 그리고 계열과 성비에 대한 인원을 일정 제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관학교와 경찰대학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으로서 수시모집 6회 지원, 정시모집 3회 지원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예외 대학이다.



계약학과와 첨단학과

마지막으로 계약학과와 첨단학과에 대하여 간단히 안내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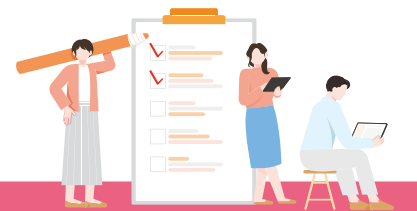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교육부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으로 2018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7개 대학 25개 학과가 참여하고 있다. 3년 교육과정을 통해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으며 2학년부터는 기업체에 근무하며 학점을 인정받는다. 모집 시기는 대부분 수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실시하지만, 한국산업기술대처럼 정시에서도 선발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수시에서 선발하지 못한 인원들은 정시로 이월하여 선발하고 있다.

권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가천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양대(ERICA)), 대전·충남(순천향대), 대구·경북(경일대), 부산·울산·경남(동의대), 광주·전남(전남대(여수)) 권역의 총 7개 대학에서 운영한다.

학업은 기업수요에 따라 3년 교육과정을 통해 4년제 학위를 취득한다. 1학년은 대학에서 전일제 수업을 통해 전공기초 능력과 현장실무 기본교육을 배우게 된다. 2~3학년에는 협약한 기업에 근무하면서 재직자 신분으로 교육을 받게 되므로 야간과 주말에 수업이 진행된다. 해당 산업체의 직무에 필요한 맞춤형 이론과 실습 교육을 받게 된다.

세상은 사업의 발전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직종이 생겨나고 그에 따른 신설학과도 앞다투어 만들어지고 있다. 첨단학과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미래먹거리 개발을 위해서 2020년 5월에 신설된 학과들이다. 첨단학과는 계약학과와 달리 대기업 취업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하지만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추후에 많은 일자리가 예정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첨단학과는 경우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 에너지, 신소재, 정보보안, 융합, 스마트 운행체 등 다양한 학과가 있다.

※ 본 글에서 제시한 자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이다.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각 대학에서 제공하는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과 모집 요강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마치면서...

흔히, 입시를 생물에 비유하곤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 같다는 의미겠지요, 생명체가 여러 세포로 구성되어 있듯이 대학 입시에도 여러 전형요소들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교활동에 충실하게 참여하면서 내신도 관리해야 하고, 수능도 신경을 써야 하니까 골치가 좀 아프실 거라 생각합니다.

간혹 어떤 학생들은 3학년이 되어서야 학업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3학년 때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변화된 대학의 입학전형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전 과정을 통해 학업을 관리한 학생이 대학이나 학과 선택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서울대에서는 정시에서도 교과평가를 수행합니다. 교과평가에서는 이수과목과 학업성취도, 그리고 학업 수행 내용을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공통과목에서 기초 및 일반교과 이외에 진로선택 과목에 대해서도 도전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교과평가가 앞으로 다른 대학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이라는 구도가 깨지는 신호일 수는 있습니다.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있을 여러분께 잠시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며 조금 더 도전적으로 학교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잔소리를 보탬니다. 여러분의 도전적인 태도가 대입에서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2023
학년도

충북대학교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 본 기본계획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원 시에는 모집시기별 모집요강을 우리대학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2023학년도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모집시기	정원구분	전형유형	전형명	'23학년도 모집인원(명)
수시	정원내	학생부 종합	①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Ⅰ전형) ②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Ⅱ전형) ③학생부종합(sw우수인재전형)	506 209 30
		학생부 교과	④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전형) ⑤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⑥학생부교과(국가보훈대상자전형) ⑦학생부교과(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⑧학생부교과(경제배려대상자전형)	714 292 16 — 52
		실기/실적	⑨실기/실적(체육특기자전형)	7
	정원외	학생부 종합	⑩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109
		학생부 교과	⑪학생부교과(특성화고출신자전형) ⑫학생부교과(특수교육대상자전형) ⑬학생부교과(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40 61 40
		기타	⑭기타(재외국민특별전형)	55
	계		— 정원내 : 8개 — 정원외 : 5개	2,131 (68.4%)
정시	정원내	수능	⑮수능(정시가군 일반전형) ⑯수능(정시나군 일반전형) ⑰수능(정시가군 지역인재전형) ⑱수능(정시나군 지역인재전형)	410 509 10 15
		실기/실적	⑲실기/실적(정시가군 일반전형)	38
	정원외	수능	㉔수능(정시가군 경제배려대상자전형) ㉕수능(정시가나군 특성화고출신자전형) ㉖수능(정시가나군 농어촌학생전형)	4 수시미충원 수시미충원
		학생부 교과	㉗학생부교과 (정시나군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수시 미충원
	계		— 정원내 : 5개 — 정원외 : 1개	986 (31.6%)
합 계				3,117 (약대 포함)

※ 2023학년도 학생정원조정계획 및 국책사업 선정에 따라 전형별·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2

주요 변경 내용

1.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전형명 변경
- 학생부교과(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 학생부교과(경제배려대상자전형)

2. 정시모집 정원외 수능(경제배려대상자전형) 신설
가. 모집인원 : 4명
나. 전형방법 : 일괄합산(1배수) 수능 100%

3. 모집시기 및 전형유형별 모집비율

구분	수시모집				정시모집		총계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실기/실적	기타*	수능	실기/실적	
모집인원 (모집비율)	854명 (27.4%)	1,215명 (39.0%)	7명 (0.2%)	55명 (1.8%)	948명 (30.4%)	38명 (1.2%)	3,117명 (100.0%)
계	2,131명 (68.4%)				986명 (31.6%)		

* 기타: 재외국민특별전형

4. 사회통합전형 모집비율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역인재	
모집인원	모집비율	모집인원	모집비율
322명	10.3%	317명	10.2%
① 학생부교과(국가보훈대상자전형) ② 학생부교과(경제배려대상자전형) ③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④ 학생부교과(특성학교출신자전형) ⑤ 학생부교과(특수교육대상자전형) ⑥ 학생부교과(특성학교졸재직자전형) ⑦ 수능(경제배려대상자전형)		①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② 수능(정시가군 지역인재전형) ③ 수능(정시나군 지역인재전형)	



3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정원내)

1. 모집인원 : 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 I 전형) 506명, 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 II 전형) 209명,
학생부종합(sw우수인재전형) 30명

2. 지원자격

전형명	지원자격
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 I 전형)	○ 2023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 II 전형)	
학생부종합(sw우수인재전형)	

3. 전형방법

> 반영비율

전형명	전형방법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수능	단계	서류평가	계
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종합(sw우수인재전형)	일괄합산	100%	미반영	일괄합산	80점 (100%)	80점 (100%)
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II전형)	일괄합산	100%	반영 (최저학력기준)	일괄합산	80점 (100%)	80점 (100%)

> 서류평가방법

전형명	전형별 반영점수			평가영역
	반영점수	기본점수	실질반영점수	
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 I 전형) 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 II 전형) 학생부종합(sw우수인재전형)	80점	40점	40점	전문성/인성/적극성

4. 수능최저학력기준: 학생부종합II 전형 적용



4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정원외)

1. 모집인원 :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109명

2. 지원자격

전형명	지원자격
학생부종합 (농어촌학생전형)	<p>○ 2023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고등학교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소재 고등학교 전 학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1.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 소재 초·중·고등학교 12년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p> <p>2.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 소재 중·고등학교 6년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p> <p>– 부모의 사망(실종), 이혼, 재혼 등의 경우에는 우리대학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거주요건을 별도 심사(기준은 추후 모집요강에서 안내)</p> <p>※ 재학기간은 최초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임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p> <p>※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p> <p>※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농어촌지역(읍·면)이 동으로 변경된 경우 동을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인정 [고등학교(초·중학교) 재학 기간 중 농어촌지역(읍·면)이 동으로 변경된 경우, 고등학교(초·중학교) 재학 기간 동안만 해당 지역을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인정]</p> <p>※ 농어촌 및 도서·벽지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교,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출신자는 제외</p> <p>※ 재학기간 중 거주불명등록(또는 주민등록말소) 기록이 있는 경우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사정대상에서 제외됨</p>

3. 전형방법

> 반영비율

전형명	전형방법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수능	단계	서류평가	계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일괄합산	100%	미반영	일괄합산	80점 (100%)	80점 (100%)

> 서류평가방법

전형명	전형별 반영점수			평가영역
	반영점수	기본점수	실질반영점수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80점	40점	40점	전문성/인성/적극성

4.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하지 않음

5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정원내)

1. 모집인원 : 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전형) 714명,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292명,
학생부교과(국가보훈대상자전형) 16명, 학생부교과(경제배려대상자전형) 52명

2. 지원자격

전형명	지원자격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전형)	<p>○ 2023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p>
학생부교과 (지역인재전형)	<p>○ 2023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충청권(충북, 세종, 대전, 충남)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 또는 이수 예정인 자</p> <p>※ 최초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충청권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p> <p>※ 고등학교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한함</p>
학생부교과 (국가보훈대상자전형)	<p>○ 2023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보훈관계법령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중 교육지원을 받는 대상자 <국가보훈처의 대학입학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발급 대상자></p> <p>※ 보훈관계법령</p> <p>–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p> <p>–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p> <p>–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p> <p>–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p> <p>–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p> <p>–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p>
학생부교과 (경제배려대상자전형)	<p>○ 2023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를 가구단위로 보장받은 가구의 학생, 혹은 개인단위로 보장받은 본인</p> <p>2. 차상위복지급여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자활급여,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차상위부가 급여,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혹은 개인 단위로 보장받은 본인</p> <p>3. '우선돌봄 차상위가구'의 학생</p>

3. 전형방법

> 반영비율

전형명	전형방법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수능	단계	학생부교과	계
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일괄합산	100%	반영 (최저학력기준)	일괄합산	80점 (100%)	80점 (100%)
학생부교과(국가보훈대상자전형) 학생부교과(경제배려대상자전형)	일괄합산	100%	미반영	일괄합산	80점 (100%)	80점 (100%)

4.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 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반영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상위 3개 영역 등급 합 총족
- 학생부교과(국가보훈대상자전형), 학생부교과(경제배려대상자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하지 않음



6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정원외)

1. 모집인원 : 학생부교과(특성화고출신자전형) 40명, 학생부교과(특수교육대상자전형) 61명,
학생부교과(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40명

2. 지원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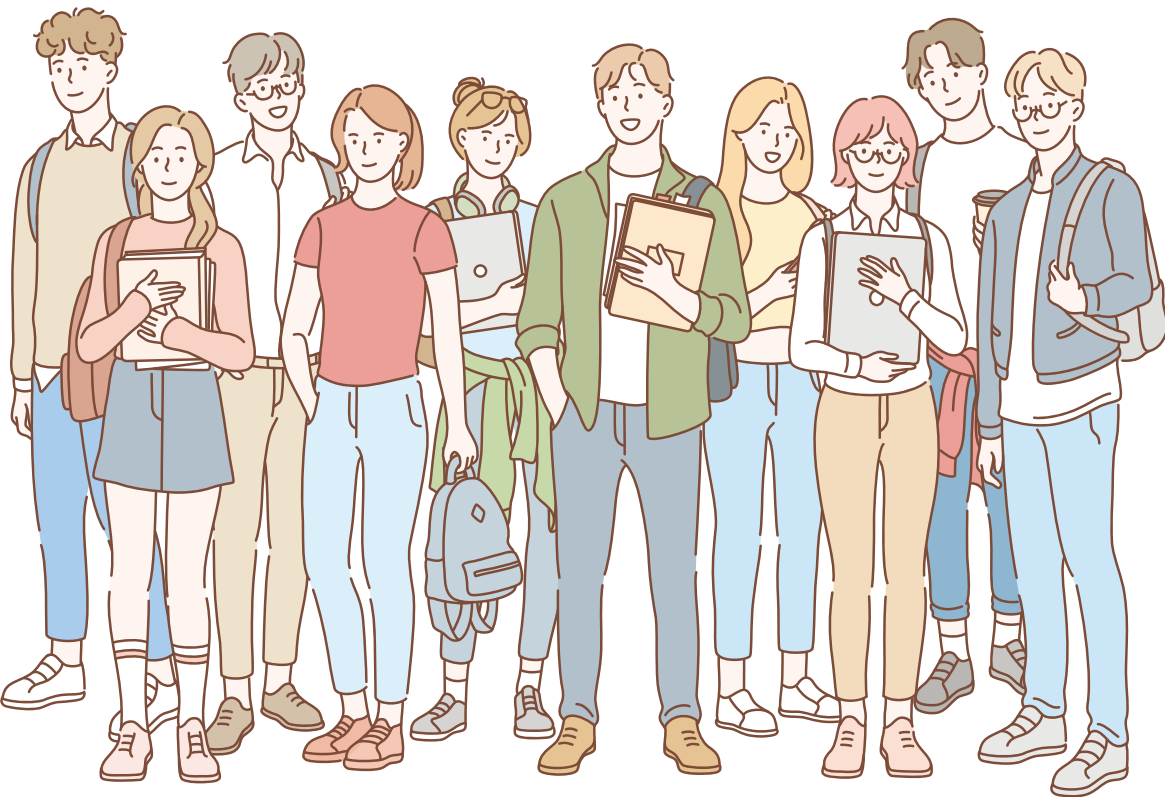
전형명	지원자격
학생부교과 (특성화고 출신자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의3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포함)의 2023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격을 충족한 자<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대학이 지정한 모집단위별 동일 계열 기준학과를 이수한 자※ 단, 동일계열 기준학과가 모집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해당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 지원 가능함※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출신자 제외
학생부교과 (특수교육 대상자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
학생부교과 (특성화고졸 재직자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포함)–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산업체 범위<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4대보험 중 1개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ul style="list-style-type: none">※ 4대보험 가입대상사업체가 아닌 산업체 종사자(농업, 수산업등)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등) 확인을 통해 인정※ 4대보험 미가입 영세창업·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납세사실증명서 확인을 통해 인정※ 경력력(병역법 제5조 1항 1호 및 3호에 의한 현역 보충역 의무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 재직기간 산정기준일: 2023. 3. 1. 기준○ 산업체 재직경력 합산은 산업체 범위에서 정한 산업체 경력력을 대상으로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역(歷)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함(「민법」 제160조 참조)<ul style="list-style-type: none">예) 12월은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 학생자격 유지기준: 입학한 학생은 졸업 시까지 재직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전형방법

> 반영비율

전형명	전형방법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수능	단계	학생부교과	계
학생부교과 (특성화고출신자전형) 학생부교과 (특수교육대상자전형) 학생부교과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일괄합산	100%	미반영	일괄합산	80점 (100%)	80점 (100%)

4.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하지 않음



7 수시 수능 반영 영역 및 최저학력기준

1.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영역

모집	모집단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사회	과학	직업	
인문	전 모집단위	●	●	●	●	●	●	●	●	●	●
자연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수학교육과, 수의예과, 약학과, 제약학과, 의예과	●	●		●	●	●		●		●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제외), 공과대학, 전자정보대학, 사범대학(수학교육과 제외)	●	●	●	●	●	●		●		●
	농업생명환경대학, 생활과학대학, 간호학과	●	●	●	●	●	●	●	●		●
공통	자율전공학부	●	●	●	●	●	●	●	●	●	●

※ 수능최저학력기준 반영 시 지원자는 모집단위별 수능 반영영역의 전 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에 응시하여야 함
※ 탐구영역은 해당 반영 영역에서 별도의 지정과목은 없으나, 반드시 2과목을 응시하여야 함
※ 한국사는 반영영역에는 포함되나(필수 응시), 최저학력기준 등급 합에는 미포함됨



2.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 II 전형), 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 반영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상위 3개 영역 등급 합 충족

계열	단과대학	모집단위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II	학생부교과	지역인재
인문	인문대학	전모집단위	13등급 이내	12등급 이내	13등급 이내
	사회과학대학	전모집단위			
	경영대학	전모집단위			
	농업생명환경대학	농업경제학과			
	생활과학대학	전모집단위			
	사범대학	전모집단위	—	9등급 이내	—
자연	자연과학대학	전모집단위	13등급 이내	12등급 이내	13등급 이내
	공과대학	전모집단위			
	전자정보대학	전모집단위			
	농업생명환경대학	전모집단위			
	생활과학대학	전모집단위			
	사범대학	전모집단위	—	9등급 이내	—
	수의과대학	전모집단위	8등급 이내	7등급 이내	8등급 이내
	약학대학	전모집단위			
	의과대학	의예과	5등급 이내	4등급 이내	5등급 이내
		간호학과	11등급 이내	10등급 이내	11등급 이내
공통	본부직할	자율전공학부	—	12등급 이내	13등급 이내

※ 자연계 모집단위는 수학 필수 반영(농업생명환경대학, 생활과학대학, 수의과대학, 간호학과는 수학 필수 미반영, 국가보훈대상자 수학 필수 미반영)
※ 자연계 및 공동계 수학 나형 응시자는 위 표에 제시된 등급보다 2등급(공동계는 1등급) 상향된 등급을 충족시켜야 함(해당영역 반영여부와 상관없음)
※ 탐구는 2개 과목 평균 등급을 반영

> 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 I, SW우수인재, 농어촌학생전형), 학생부교과(국가보훈대상자전형, 경제배려대상자전형, 특성화고출신자전형, 특수교육대상자전형,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8

수시 학생부 반영방법

1. 반영비율 및 반영점수

전형구분	학년별 반영비율 (%)	반영비율(%)		교과성적반영					비교과성적반영			
	1·2·3 학년	교과	비교과	반영 요소	반영 점수	기본 점수	실질 반영 점수	과목별 가산점	반영 요소	반영 점수	기본 점수	실질 반영 점수
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학생부교과(국가보훈대상자전형) 학생부교과(경제배려대상자전형) 학생부교과(특성화고출신자전형) 학생부교과(특수교육대상자전형) 학생부교과(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100%	100%	미반영	석차등급· 이수단위/ 검정고시 합격성적	80점	40점	40점	없음	-	-	-	-
실기/실적(체육특기자전형)	100%	90%	10%	석차등급· 이수단위	18점	2점	16점	없음	출결	2점	-	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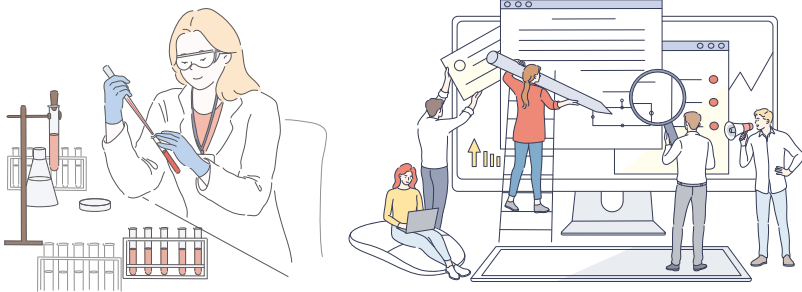
2. 교과성적 반영교과 및 과목 수

학년	계열	반영교과	과목수
1학년	전계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해당교과 전과목
2·3학년	인문계 예체능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자연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공통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 검정고시 합격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 검정고시 성적 반영(전 계열 공통)

※ 국외 고등학교 성적: 이수한 전 과목을 반영

※ 자세한 점수 산출 방식은 추후 모집요강에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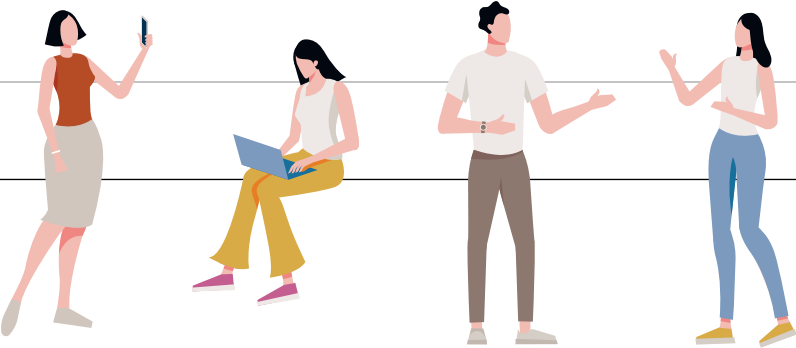
9

정시모집

1. 모집인원 : 수능(가군 일반전형) 410명, 수능(가군 지역인재전형) 10명
수능(가군 경제배려대상자전형) 4명
실기/실적(가군 일반전형) 38명
수능(나군 일반전형) 509명, 수능(나군 지역인재전형) 15명
수능(가군/나군 특성화고출신자전형, 농어촌학생전형) 수시 미충원인원

2. 지원자격

군	전형명	지원자격
가군	수능 (일반전형)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2023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실기/실적 (일반전형)	
	수능 (지역인재전형)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2023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충청권 (충북, 세종, 대전, 충남)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 또는 이수 예정인 자 ※ 최초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충청권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한함
	수능 (경제배려대상자전형)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지원자격은 수시 학생부교과(경제배려대상자전형)과 동일함
	수능 (특성화고출신자전형)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지원자격은 수시 학생부교과(특성화고출신자전형)과 동일함 ※ 모집인원 : 수시 학생부교과(특성화고출신자전형) 미충원 인원
	수능 (농어촌학생전형)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지원자격은 수시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과 동일함 ※ 모집인원 : 수시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미충원 인원
나군	수능 (일반전형)	○ 가군과 동일함
	수능 (지역인재전형)	○ 가군과 동일함
	학생부교과 (특성화고졸 재직자전형)	○ 지원자격은 수시 학생부교과(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과 동일함 ※ 모집인원 : 수시 학생부교과(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미충원 인원
	수능 (특성화고출신자전형)	○ 가군과 동일함
	수능 (농어촌학생전형)	○ 가군과 동일함





3. 전형방법

> 수능(일반전형, 지역인재전형, 경제배려대상자전형, 특성화고출신자전형, 농어촌학생전형), 실기/실적(일반전형) 반영비율

모집단위	전형방법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계	최저학력기준
		수능	실기		
인문계, 자연계(과탐 인정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1,000점 (100%)	—	1,000점 (100%)	제한 없음
자연계(사탐/과탐 인정 모집단위), 자연계(특성화고출신자전형 모집단위), 공통계	일괄합산 (100%)	1,000점 (100%)	—	1,000점 (100%)	
예체능계(조형예술,디자인)	일괄합산 (100%)	500점 (44.4%)	500점 (55.6%)	1,000점 (100%)	
예체능계(체육교육과)	일괄합산 (100%)	650점 (72.4%)	350점 (27.6%)	1,000점 (100%)	

> 학생부교과(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반영비율

전형명	전형방법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수능	단계	학생부교과	계
학생부교과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일괄합산	100%	미반영	일괄합산	80점 (100%)	80점 (100%)

4. 수능 반영방법

> 반영영역

모집 계열	모집단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가산점 영역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사회	과학	직업		
인문	전 모집단위	●	●	●	●	●	●	●	●	●	●	—
자연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수학교육과, 수의예과, 약학과, 제약학과, 의예과	●	●		●	●	●		●		●	—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제외), 공과대학, 전자정보대학, 사범대학(수학교육과 제외)	●	●	●	●	●	●		●		●	—
	농업생명환경대학, 생활과학대학, 간호학과	●	●	●	●	●	●	●	●		●	과학 탐구
	특성화고출신자 전형 모집단위	●	●	●	●	●	●	●	●	●	●	과학 탐구
예체능	전 모집단위	●	●				●	●	●	●	●	—
공통	자율전공학부	●	●	●	●	●	●	●	●	●	●	과학 탐구

※ 지원자는 모집단위별 수능 반영영역의 전 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에 응시하여야 함
※ 탐구영역은 해당 반영 영역에서 별도의 지정과목은 없으나, 반드시 2과목을 응시하여야 함
※ 한국사는 반영영역에는 포함되나(필수 응시), 수능 성적 계산에는 미포함됨

> 반영비율

모집 계열	모집단위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			
		국 어	수 학	영 어	탐 구
인문	전 모집단위	30	20	20	30
자연	전 모집단위	20	30	20	30
예체능	전 모집단위	40	—	20	40
공통	자율전공학부	25	25	20	30

> 반영점수 및 산출방법

— 모집계열별 수능 반영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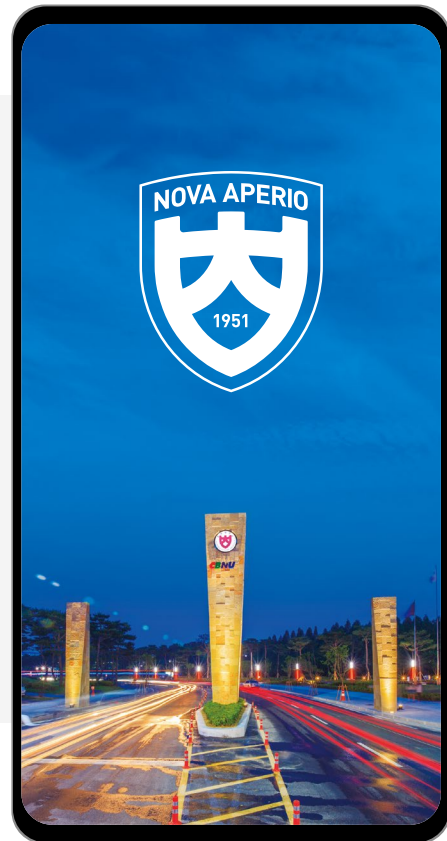
모집계열	모집단위	반영점수	기본점수	실질반영점수
인문계, 자연계(과탐 인정 모집단위)	해당학과	1,000점	800점	200점
자연계(사탐/과탐 인정 모집단위), 자연계(특성화고출신자전형 모집단위) 공통계	해당학과	990점	790점	200점
예체능계(조형예술학과, 디자인학과)	해당학과	500점	300점	200점
예체능계(체육교육과)	해당학과	650점	430점	220점

※ 수능(일반전형, 지역인재전형, 농어촌학생전형) 자연계 사회탐구/과학탐구 인정 모집단위 지원자 중 과학탐구 응시자, 공통계 모집단위 지원자 중 과학탐구 응시자, 수능(특성화고출신자전형) 자연계 모집단위 지원자 중 과학탐구 응시자는 과학탐구 응시 과목 수 및 취득 표준점수를 고려하여 수능 가산점 부여
※ 수능 영역별 기본점수: 기본점수 총점×영역별 반영비율
※ 수능 영역별 실질반영점수: 실질반영점수 총점×영역별 반영비율

> 점수산출 활용지표

— 국어, 수학, 탐구: 영역별 취득 표준점수
— 영어: 절대평가 등급
※ 자세한 점수 산출 방식은 추후 모집요강에 안내





한 눈에 보는 대학입학전형 처리 절차와 방법

여러 단계와 절차를 거쳐서 학생을 선발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선발과정입니다.
대학에 따라서 절차의 운영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대학에서 하나의 전형을 운영하고 합격자를 선정하여 발표하는
모든 과정 중에 공정성을 위해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1. 원서접수



2. 지원자격 심사

지원자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등을 검토하여 지원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한 지원자를 선별합니다.



3. 서류검증위원회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대상으로 표절과 대필 여부를
검증하는 작업을 합니다.



4. 서류평가

다수의 입학사정관이 조를 이루어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등 지원자의 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5. 재평가

1차 서류평가 결과, 평가자 간의 평가결과가
일정점수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재평가를 실시합니다.



6. 자체감사 및 공정성 관리

서류평가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8. 대학입학사정위원회

최종합격자 심의를 합니다.



7.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최종합격자 사정 기준을 통해
합격자 예비심의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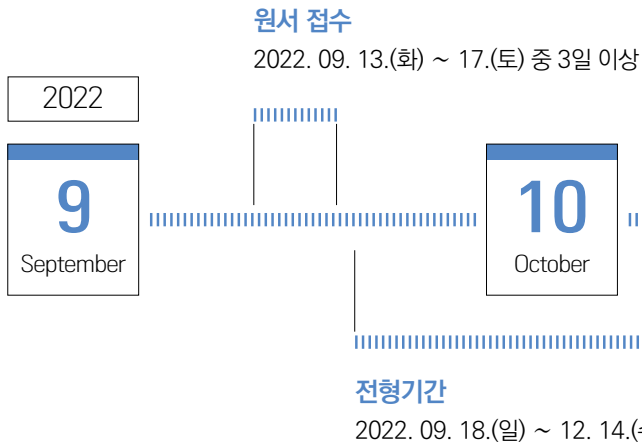
9. 최종합격자 발표



원서접수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충북대학교는 이렇게 선발합니다.

원서접수 후 합격자 발표까지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대학에서는 도대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지 궁금하시죠?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와 절차가 있습니다.
위의 그림을 살펴보면 대학의 학생선발과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충북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



수시모집

원서접수
전형기간
합격자 발표
합격자 등록
수시 미등록충원 합격 통보 마감
수시 미등록충원 등록 마감

2022. 09. 13.(화) ~ 17.(토) 중 3일 이상
2022. 09. 18.(일) ~ 12. 14.(수)(88일)
2022. 12. 15.(목)까지
2022. 12. 16.(금) ~ 19.(월)(4일)
2022. 12. 26.(월) (합격자 발표 18시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 ~ 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함
2022. 12. 27.(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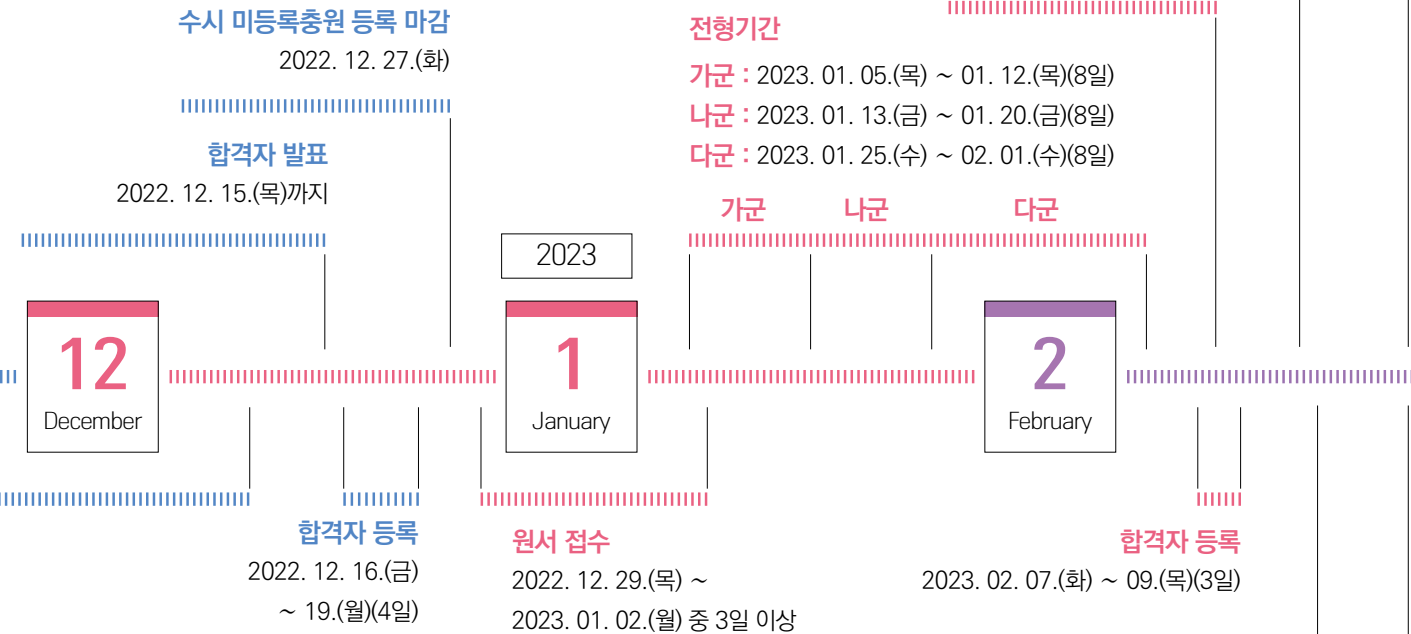
정시모집

원서 접수
정시 가군
정시 나군
정시 다군
합격자 발표
합격자 등록
정시 미등록충원 합격 통보마감
정시 미등록충원 등록마감

2022. 12. 29.(목) ~ 2023. 01. 02.(월) 중 3일 이상
2023. 01. 05.(목) ~ 12.(목)(8일)
2023. 01. 13.(금) ~ 20.(금)(8일)
2023. 01. 25.(수) ~ 02. 01.(수)(8일)
2023. 02. 06.(월)까지
2023. 02. 07.(화) ~ 09.(목)(3일)
2023. 02. 16.(목) (합격자 발표 18시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 ~ 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함
2023. 02. 17.(금)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 2022년 11월 17일(목) / 성적통지일: 2022년 12월 9일(금)

● 수시모집 ● 정시모집 ● 추가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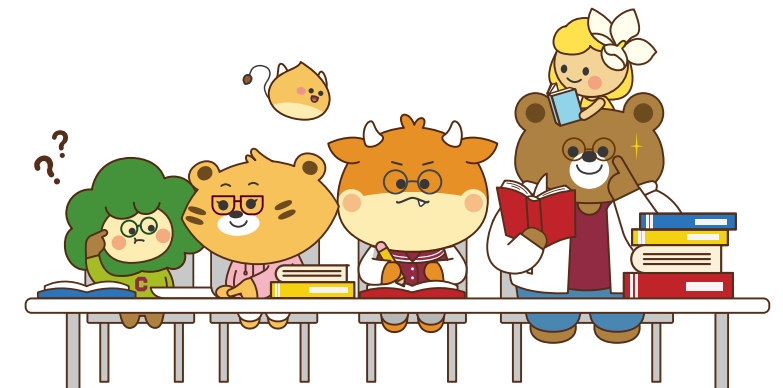
추가모집

접수·전형·합격 통보
마감·등록
등록 기간

2023. 02. 20.(월) ~ 28.(화)
※ 합격통보마감: 2023. 02. 28.(화) 18:00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 ~ 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함
2023. 02. 28.(화)

추가모집 원서접수·전형·합격 통보 마감·등록

2023. 02. 20.(월) ~ 28.(화)
※ 합격통보마감: 2023. 02. 28.(화) 18:00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 ~ 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함





AAA

All About Admissions



함께 여는
역동적 미래
충북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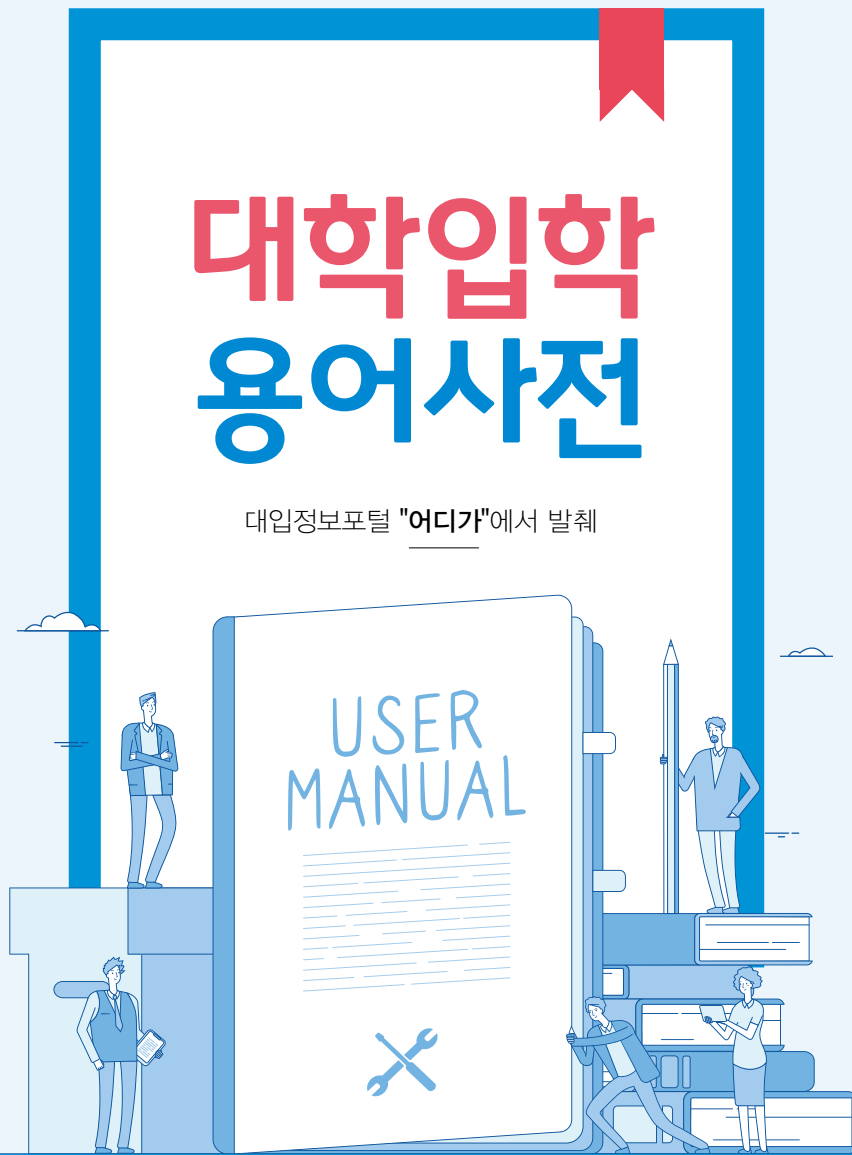


II. 입학 정보

충북대학교 대학입학전형 가이드북은
수험생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대학입학 용어사전	38
자주묻는 질문	44
온라인 플랫폼 강화에 따른 입학정보 탐색방법	54





가산점 [평가]

특정 평가요소, 과목 등에 점수를 부여하는 것을 말함

고른기회전형 [대학입학전형일반]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형으로, 농어촌 학생 등 법률상 보장되는 정원의 특별전형과 대학 독자적 기준에 따른 보상 및 배려 차원의 전형 내 특별전형이 있음

기본점수 [평가]

시험에 응시한 모든 수험생이 받을 수 있는 최소점수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영역 [평가]

수시 최저학력기준이나 정시에서 반영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 응시영역 [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할 때나 정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성적반영 여부와 상관없이 응시하여 결과치를 얻어야 하는 과목을 말함

등록예치금 [입학전형 기타]

수시모집 합격자가 본등록 전에 등록 의사를 밝히는 의미에서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말함
- 유사용어: 등록확인 예치금, 예치금, 수시합격 예치금, 수시모집 예치금, 확인 예치, 등록(예치)금

등록포기 [평가]

대학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하였으나,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는 등의 이유로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을 포기하는 의사를 전달하는 절차. 반드시 등록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이중등록으로 합격이 취소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모집단위 [대학입학전형일반]

대학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단위를 말함. 주로 학과 단위로 모집을 하며, 학부 단위나 계열별로 통합하여 모집하는 경우도 있음

문서등록 [입학전형 기타]

수시모집 합격자가 본등록 전에 온라인 등을 이용하여 등록 의사를 밝히는 절차. 등록예치금과 같은 효력이 발생함

미등록 충원 [입학전형 기타]

합격자가 등록을 하지 않아 결원이 생겼을 때 해당 대학의 예비합격자를 추가로 등록시키는 것을 말함
- 유사용어: 결원 보충, 미등록 결원 보충, 미충원 인원 선발, 후보 충원



보

복수지원 [입학전형 기타]

수시모집은 각 대학에 최대 6개 전형 이내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것을 복수지원이라고 함. 해당 대학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동일 대학 내 복수지원 가능. 정시모집 역시 모집군 별로 각 1회씩 총 3개의 전형을 지원 할 수 있음. (모집 군이 다른 대학 간(가/나/다 군) 또는 동일 대학 내 복수지원 가능) (복수지원 시 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은 제외함)



서

서류평가 [평가]

대입전형에서 서류를 활용한 평가(학생부, 자기소개서 등)를 말함

실질반영비율 [평가]

전형요소별(학생부, 서류, 면접 등)로 전형총점에 대해 미치는 실제적인 비율을 의미함. 현재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 비율을 함께 기재하고 있음



예

예비합격자 [입학전형 기타]

최초합격자 발표 시 후순위 합격 기회를 부여받은 지원자
- 유사용어: 예비순위자(예비자), 예비합격 순위자, 총원대상자, 예비후보자, 총원예비합격자, 후보자, 후보순위자

이월 인원 [입학전형 기타]

모집시기별로 미달 또는 미등록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다음 모집시기로 이월하여 선발하는 인원을 말함. 수시모집에서 미충원된 인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시모집 지원시 확인이 필요함

이중등록 [입학전형 기타]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등록한 것을 말하며, 이중등록은 입학 취소 사유가 되므로 반드시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함

전

전형방법 [대학입학전형일반]

학생 선발 시 고려되는 전형자료, 전형요소, 반영비율, 선발단계 등 일련의 절차나 과정을 말함

전형요소 [대학입학전형일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고려되는 요소를 말함
- EX. 학생부 교과, 비교과, 서류평가성적, 면접평가성적, 수능성적, 실기능력 등

전형자료 [대학입학전형일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료를 말함

정량평가 [평가]

객관적으로 수량화가 가능한 자료를 사용하는 평가방법을 말함

정성평가 [평가]

전형자료를 토대로 평가자가 그 의미를 찾고 해석하는 평가방법을 말함

정원내 전형 [대학입학전형일반]

대학이 허가된 입학정원 내에서 선발하는 전형을 말함

정원의 전형 [대학입학전형일반]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전형을 말함.

중복지원 금지 [입학전형 기타]

동일한 전형 내에서 2개 이상의 모집단위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을 말함
- EX. 동일한 전형으로 영문과, 경영학과를 동시에 지원할 수 없음.
그리고 동일대학 내에서 전형 간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원 시 해당 대학 모집요강이나 입학처에 확인해야 함





대

최종등록 [대학입학전형일반]

합격자가 해당 대학에 등록의사를 밝히는 예치금을 납부하거나 문서등록을 실시한 후, 대학에서 정한 등록기간에 최종적으로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함. 정시전형의 경우 합격자 발표 후 등록예치금 없이 바로 등록함

최종합격 [대학입학전형일반]

입학전형 절차와 단계에 따라 최종합격한 것을 말함. 전형방법별로 일괄 합산 전형은 별도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전형요소별 반영점수의 총점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선발되며, 단계별 전형은 단계마다 모집인원의 일정 배수를 선발하고, 마지막 단계에 최종합격자를 선발함

최초합격 [대학입학전형일반]

지원한 입학전형에서 최초에 합격한 경우를 말함

추가모집 [대학입학전형일반]

정시모집 이후 모집인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을 말함

[대학입학전형일반] 총원합격

합격자가 등록을 하지 않아 결원이 생겼을 때 해당 대학의 예비합격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을 말함



표

평가요소 [평가]

지원자를 평가하는 기준과 내용을 말함
- EX.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 논리력, 수리력 등

표준점수 [평가]

원점수에 해당하는 점수를 상대적인 서열로 나타내는 점수임. 즉, 표준점수는 영역 또는 선택과목별로 정해진 평균과 표준편차를 갖도록 변환한 분포 상에서 개인이 획득한 원점수가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가를 나타내는 점수를 말함



성

학생부 교과 [대학입학전형일반]

학생들이 각 교과목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얻은 학업성취의 수준을 말함

학생부 비교과 [대학입학전형일반]

학생들이 교육과정 중에서 경험한 모든 활동 내용을 말함

학생부교과전형 [대학입학전형일반]

학생부 교과성적을 중심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을 말함

학생부종합전형 [대학입학전형일반]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생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을 정성적으로 종합 평가하는 전형을 말함

환산점수 [평가]

대학 자체의 반영 방식을 통해 산출한 전형총점을 말함. 지원한 대학이 표준점수, 백분위, 대학 자체 변환표준점수 중 어떤 점수를 활용하는지, 영역별 반영비율과 가중치는 어떤지에 따라 입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을 필요로 함





I 대학지원 I

Q1 수시모집에 지원 가능한 횟수는 몇 회인가요?

- 지원 가능 횟수는 최대 6회입니다.
- 지원 횟수는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대학(전문대학·산업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공 대학,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및 각종 학교, 사이버대 제외)의 전형을 대상으로 하며, 1개의 대학에 전형을 달리하여 복수 지원한 경우도 각각 모두 지원 횟수로 산정합니다.
- ☞ <예시> A대학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에 모두 지원하는 경우 → 수시 2회 지원
- '6회 제한'에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제외), 수시모집에서 시행하는 모든 전형이 해당됩니다.
- 6회를 초과하여 원서를 접수한 경우, 원서접수 시간순서상 6회 이후의 접수는 취소가 됩니다.

Q2 수시모집 '6회 지원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대학도 있나요?

- 수시 '6회 지원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추가로 지원이 가능한 대학 및 전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대학: 청운대(충남 홍성, 인천), 호원대(전북 군산)
- 전문대학: 133개 대학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15개 대학)
- 각종학교: 순복음총회신학교(충북 제천)
- 전공대학(각종학교): 국제예술대학, 정화예술대학, 백석예술대학
- 사이버대학교
- 일반대학의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
- ☞ <예시1>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KAIST)는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이므로 복수지원 금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4년제 일반대학에 6회 지원 후 추가적으로 카이스트 수시에 지원 가능하여 총 7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 ☞ <예시2> 수시 4년제 일반대학 6회 지원 후 전문대학은 횟수에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I 대학지원 I

Q3 수사에서 6회를 초과하여 접수한 경우 원서접수 취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수험생이 6회를 초과해서 원서를 접수한 경우, 위반 검색 결과를 토대로 대학에게 원서 접수 시간 순서상 6회를 초과한 접수에 대해 학생에게 통보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회 지원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입학이 무효가 됩니다.(순서상 6회 지원 초과한 후순위 대학에 합격하여 등록 후 학교를 다니고 있어도 향후 복수 지원 위반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이 무효가 됩니다.)
- 온라인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전산에 입력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며, 창구 접수의 경우에는 대학이 지원자의 원서를 접수한 시각,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대학에 우편이 접수된 시각을 기준으로 초과 지원 제한을 하게 됩니다.

Q4 수시모집 6회 초과 지원 위반 이외에 또 어떤 위반사항이 있나요?

- 수시 모집 6회 초과 이외 위반사항 점검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시모집 예치금 이중 납부
 - 수시모집 합격 후, 정시모집 또는 추가모집에 지원하는 경우
 - 정시모집 동일 군 복수 지원(전문대, 산업대는 해당 없으며, 동일 군 접수 중 후순위 접수 대학이 취소 대학에 해당됨)
 - 일반대학 정시모집에 등록된 상태에서 일반대학 추가모집에 지원하는 경우(전문대, 산업대 정시모집 등록자는 포기하지 않아도 추가모집 지원 가능, 추가모집 기간 전에 일반대학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에 한하여 추가모집 지원 가능)
 - 최종 이중등록

Q5 나의 대입지원 이력과 지원방법 위반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 원서접수 기간에 지원자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통해 지원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대학이 제출한 자료를 정리하여 '어디가'로 이관하여 확인하기 때문에 실시간 조회 불가
-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 조회**
 - 방법: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대입원서 지원정보 > 본인인증(본인명의 휴대폰 인증)
 - 본인(지원자)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대교협은 수합된 지원자 정보를 토대로 '위반 검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어디가'에 이관하여 지원 내역과 위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 현재 한 가지라도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위반'이라고 표시되며, 위반 사항이 없으면 '적정'이라고 표시 됩니다.

I 대학지원 I

Q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및 전공대학은 수시에 합격해도 정시에 지원 가능한가요?

-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15개 대학·전공대학*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수시모집에서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을 하면 정시지원은 불가하지만, KAIST, 경찰대학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전공대학(각종 학교)는 수시모집에 합격해도 정시모집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산업대학, 전문대학은 수시모집에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지만,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15개 대학과 전공대학(각종 학교)은 수시모집에 합격해도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유형	지원횟수 포함여부	합격 후 정시 지원 여부
일반대학(4년제)	O	X
교육대학	O	X
산업대학	X	X
전공대학(각종 학교)	X	O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15개 대학	X	O
전문대학	X	X

Q7 원서접수 후 취소나 수정이 가능한가요?

- 접수되어 수험번호가 생성된 원서는 원칙적으로 취소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단, 고교, 주소, 연락처 변경 등 기본사항이 잘못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수정이 가능하므로 원서접수 사이트 또는 지원 대학 입학처에 문의하면 됩니다.



Q8 원서접수 후 개명을 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원서접수는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름 역시 접수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이름으로 접수합니다.
- 원서접수 후 개명이 되었다면, 대학에 문의하여 관련 개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 불일치 사항 확인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I 대학지원 I

Q9 공통원서접수시스템에서 대입원서를 한 번만 작성하면 모든 대학에 지원이 가능하나요?

- 표준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은 대학 지원 시 필요한 정보를 최초 1회 작성하여, 모든 대학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원서접수시스템입니다. 원서정보(공통원서, 공통자기소개서)를 표준화하여, 1회 작성으로 모든 대학의 접수에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공통원서, 자기소개서 기본 문항 등은 한 번만 작성하지만 대학별 추가 작성 사항은(ex) 자기소개서 3번- 대학자율문항 등) 원서접수 대행사 개별대학 페이지에서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Q10 일반대, 전문대 수시에 합격한 경우 일반대 및 전문대 정시, 추가(자율) 모집 지원이 가능하나요?

- 수시모집에 지원하여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에 합격한(최초 및 충원합격) 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합격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시 및 추가모집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충원 합격이 되었으나 홈페이지 게시 미확인, 전화연락이 되지 않아 등록하지 않은 경우라도 합격한 사실이 있으므로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수시에 예비번호를 부여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충원 합격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합격된 것이므로 정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하여 이중등록 금지가 적용되어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 중 1개의 대학에만 등록을 해야 합니다.

I 등 록 I

Q1 수시 모집 합격 후 절차인 '예치금 납부' 혹은 '문서등록'이란 무엇인가요?

- 예치금이란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가 해당 대학에 등록할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합격 후 신입생 등록금 총 납부금액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일부를 납입하는 금액으로서 해당 대학에 등록하겠다는 의사 표현입니다.
- 수시모집에서 합격하고도 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문서등록은 위 예치금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의사표현 행위입니다. 단,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며, 온라인에서 본인이 등록하는 절차만 실시합니다.
- 예치금과 마찬가지로 수시모집에서 합격하고도 문서등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I 등 록 I

Q2 이미 예치금을 납부하거나 문서등록을 하였는데 다른 대학에 충원합격하여 등록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한 자가 다른 대학 수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등록한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힌 후(포기 방법이 대학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대학 입학처에 문의해야 합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충원 합격 대학의 해당 절차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Q3 예치금을 납부하거나 문서등록을 실시한 대학에 등록 포기 및 환불 신청을 했으나 환불(혹은 등록포기 확인)이 늦어질 경우 충원합격한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하거나 혹은 문서등록을 실시하면 이중등록에 해당되나요?

- 기존에 합격한 대학에 '등록 포기신청서' 및 '등록금 환불신청서'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문서등록 포기절차'를 실시한 후, 충원 합격한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하면 환불 여부와 상관없이 이중등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4 수시모집 합격 후 예치금을 여러 군데 납부하거나 문서등록을 여러 군데 실시하면 안되나요?

- 수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자는 등록 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등록 확인 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중등록 금지)
- 다수의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거나 문서등록을 실시한 수험생은 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 사실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일반대학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사이버대학·전공대학(각종학교) 간에는 이중등록 금지를 적용하지 않지만 '대학 자체 학칙'에 '이중등록 금지' 조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학 홈페이지에서 학칙을 확인하거나 대학에 문의해야 합니다.



I 등 록 I

Q5 대학 재학생이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예치금을 납부하거나 문서등록을 실시하면 이중등록에 해당되나요?

- 대학 재학생이 수시모집에 합격해서 예치금을 납부하거나 문서등록을 실시해도 이중등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중등록 금지는 동일 학년도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입학 연도가 다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그렇지만 새로운 대학에 입학하기 이전에 이중 등록 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에 다니던 대학에 자퇴원을 제출하는 등 해당 절차를 기존 대학에 문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5 입학 후 등록포기를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환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입학 허가를 받은 자가 등록 포기를 표시한 경우에 등록금 환불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대학등록금의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기한 경우
3.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3의 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할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5.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

[별표] 등록금의 반환기준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을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금의 징수방법을 따라 정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2학기분 이상의 등록금을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고 그 이후의 각 학기분의 등록금은 그 전액을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이전	등록금의 전액
학기 개시일 ~ 30일 까지	등록금의 5/6
30일 이후 ~ 60일 까지	등록금의 2/3
60일 이후 ~ 90일 까지	등록금의 1/2
90일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

I 수시모집 I

Q1 자기소개서 작성 시 '0점'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의 작성 시 유의 사항에 따르면, 학생부위주전형(교과, 종합) 지원 시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에 공인어학성적이나 수학, 과학, 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실적을 기록하는 경우는 "0점"(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제출된 자기소개서는 표절, 대리 작성,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사실 등의 검증을 위해 유사도검색을 실시하고,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I 정시모집 I

Q1 정시모집에 지원이 금지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수시모집의 최초 합격자 및 총원 합격자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합격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총원합격이 되었으나 홈페이지 게시 미확인, 전화연락이 되지 않아 등록하지 않은 경우라도 합격한 사실이 있으므로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은 수시 6회 지원 제한은 받지 않으나 복수지원 금지에 해당되므로 전문대학과 산업대학 수시 합격자는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수시에 예비번호만 부여받고 최종적으로 총원합격이 되지 않은 경우 불합격된 것이므로 정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 대학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 학교' 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수시, 정시 지원에 제한을 받지 않아 수시에 합격해도 정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예시> 일반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한 후 카이스트 정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카이스트 수시모집에 합격한 후 일반대학 정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수시합격 시 정시 지원 가능 대학(한국농수산대학, 한국폴리텍대학 포함)

Q2 정시모집에 지원이 가능한 횟수는 몇 회인가요?

- 정시모집에서는 군별(가나·다군) 1회씩 최대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I 추가모집 I

Q1 추가모집에 지원이 금지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 추가모집은 정시모집 이후에 발생하는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형을 의미합니다. 추가모집은 정시모집 총원 등록 기간이 지난 후에 실시합니다. 추가모집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첫째, 정시모집에 합격한 사실이 없는 자 또는 정시모집에 합격하였으나 추가모집 기간 전에 등록(일반 4년제 대학 기준)을 포기한 자입니다.
 - 둘째, 산업대학(청운대, 호원대),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지원자는 정시모집에 합격한 후 등록을 포기하지 않아도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셋째, 4년제 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Q2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했는데, 포기하면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나요?

- 수시모집의 최초 합격자 및 총원 합격자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합격했다는 사실만으로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Q3 정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경우 4년제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나요?

- 정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최초 등록 및 총원합격하여 추가등록 포함)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단, 정시모집 미등록 총원 등록 마감일 16시까지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에 한해서만 추가모집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단, 정시모집 전문대학, 산업대학 등록한 자는 4년제 추가모집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시대, 온라인 플랫폼 강화에 따른 입학정보 탐색방법

충북대학교 입학사정관 강성훈

※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019년 상반기부터 만 2년이 흐른 지금, 전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시대로 전환되었다. 당연하게 여겨졌던 사람과 사람 간의 대면 접촉이 잠시 중단되고, 온라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소통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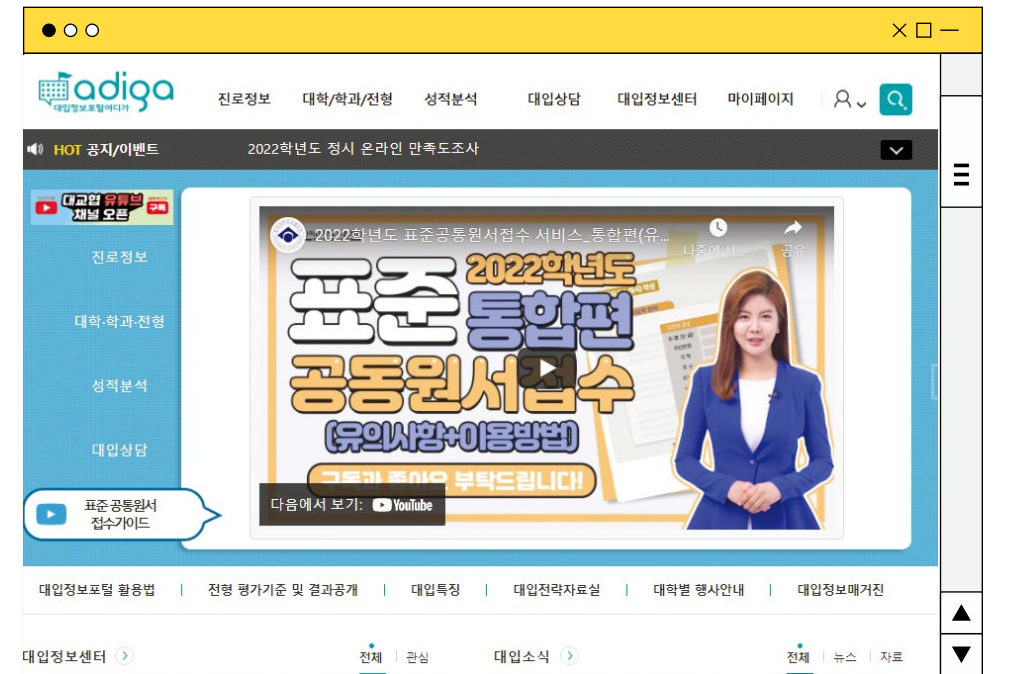
이러한 비대면 상황은 대학입시에도 영향을 미쳤다. 고교 방문 상담 및 설명회, 각종 대학입학정보박람회 등의 대면 중심의 정보제공 프로그램이 축소되면서, 대학은 대입정보제공 및 입학홍보 활동에 난항을 겪었을 뿐 아니라, 수험생도 희망하는 대학 및 입시 정보를 획득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지만, “벽을 밀치면 문이 되고, 눕히면 다리가 된다”는 말처럼, 대학과 수험생은 비대면의 한계를 극복해 나갔다. 대학들은 이전의 대면 프로그램 못지않은 여러 가지 비대면 홍보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수험생들은 그에 호응하여 물리적 거리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더 활발하게 정보를 탐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비대면 상황에서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대학 입학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인터넷 사이트 01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은 정보가 있지만, 정작 수험생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 아래 소개하는 사이트를 활용해서 내 진로·진학 탐색에 도움을 받아보자.



—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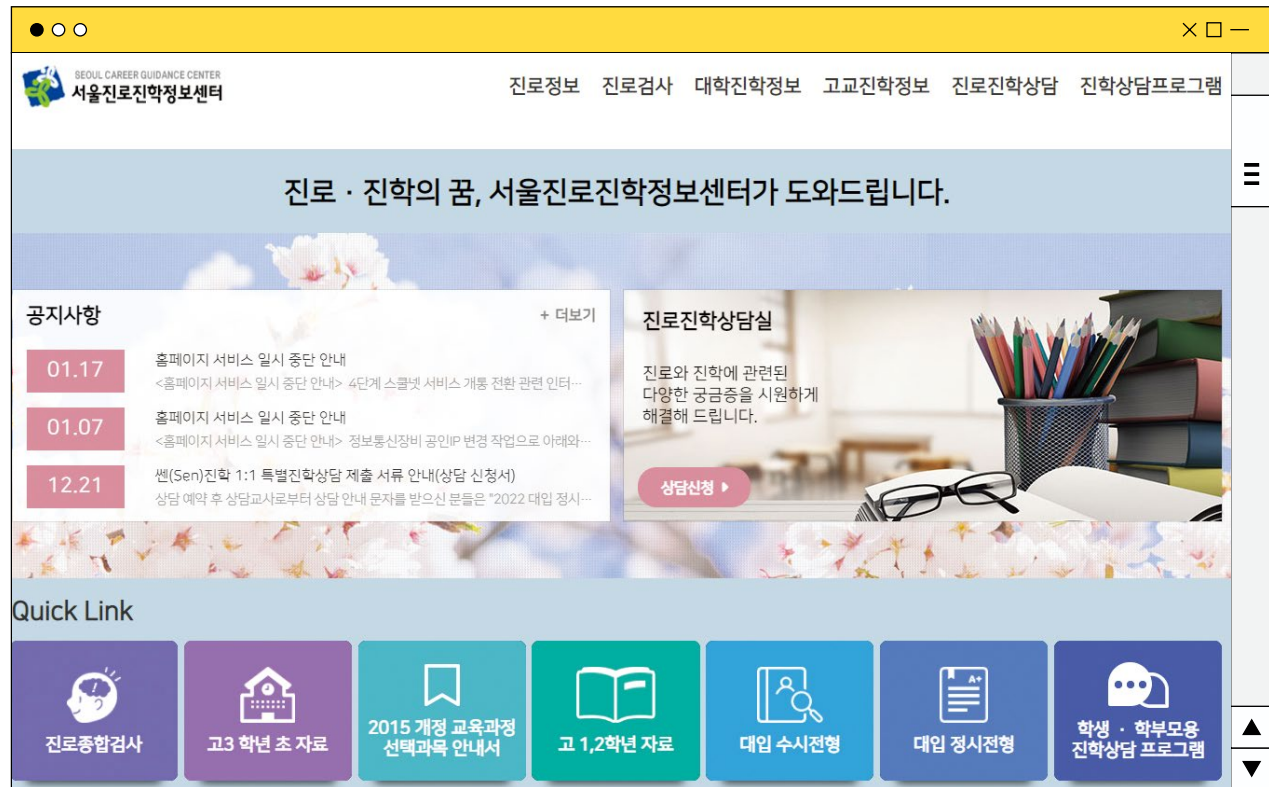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다양한 입시·진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상담 신청도 가능하다. 학과별로 구성되어있는 ‘온라인 전공상담’으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고, ‘온라인 대입상담’과 ‘전형정보’ 메뉴를 통해 내가 희망하는 대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성적분석’ 메뉴에서는 학생부/수능/모의고사 성적을 학생이 원하는 전형 조건으로 분석해준다. 세부메뉴인 ‘대학별 성적분석’을 활용하면, 목표하는 대학기준으로 점수가 산출되고, 전년도 입시결과와 비교도 가능하다.

‘대입정보센터’메뉴에서는 대학별로 주최하는 행사는 물론 대학별 대입특징도 조회할 수 있다. 예정되어 있는 박람회와 설명회도 일정 순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목표하는 대학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 각 교육청별 진로진학지원센터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 단위로 교육연구정보원과 연계한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진로진학지원센터에는 대입은 물론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탑재되어 있다. 운영프로그램이 지역별로 조금씩 상이하니 본인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진로진학지원센터도 탐색해보자. (단, 운영 지역 및 프로그램에 따라 거주지 제한 또는 로그인에 필요할 수 있음)



☺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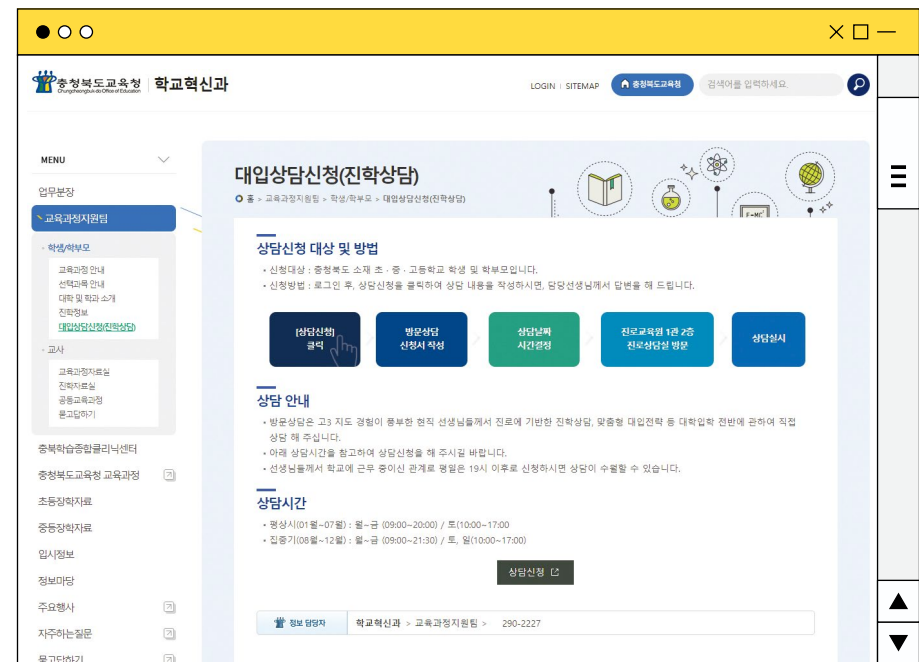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는 ‘썸진학(Sen-Jinhak)’이라는 명칭으로 대입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썸진학은 교사용과 학생·학부모용으로도 구분하여 제공된다. 수험생은 간단히 성적입력만으로 웹 기반 진학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가능한 대학을 검색할 수 있다. 2022학년도에는 대입 썸진학 정시전형 진학지도 자료집(교사용 3종, 학부모용 1종)을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공개하였다. 이밖에도 교육연구정보원은 온라인 설명회, 실시간 화상 진학상담 운영, 진학지도 자료집 발간 등 다양한 썸진학 시리즈를 학교 현장에 제공하고 있다.¹⁾

1) 서울시교육청, 2022 대입 정시 학생·학부모 온라인 진학설명회(2021.12.09, 이데일리, 오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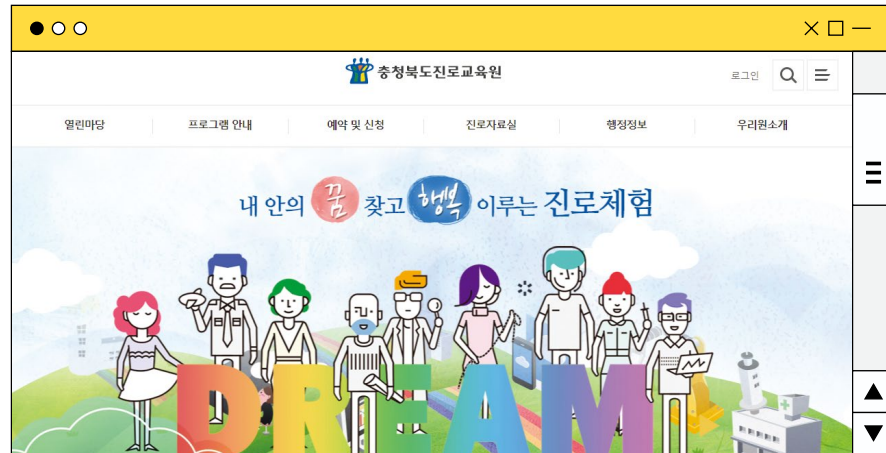
☺ 경기진학정보센터 🖱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경기진학정보센터는 크게 진로심리검사나 미래직업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진로정보’ 메뉴와 입시뉴스와 대입자료실 등으로 구성된 ‘진학정보’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진학상담’ 메뉴에서는 비대면 화상상담과 사이버상담이 가능하다. 진로정보 메뉴의 ‘고교-대학 연계’ 메뉴에서는 대학에서 추천하는 다양한 진로탐색 프로그램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진로·진학탐색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공지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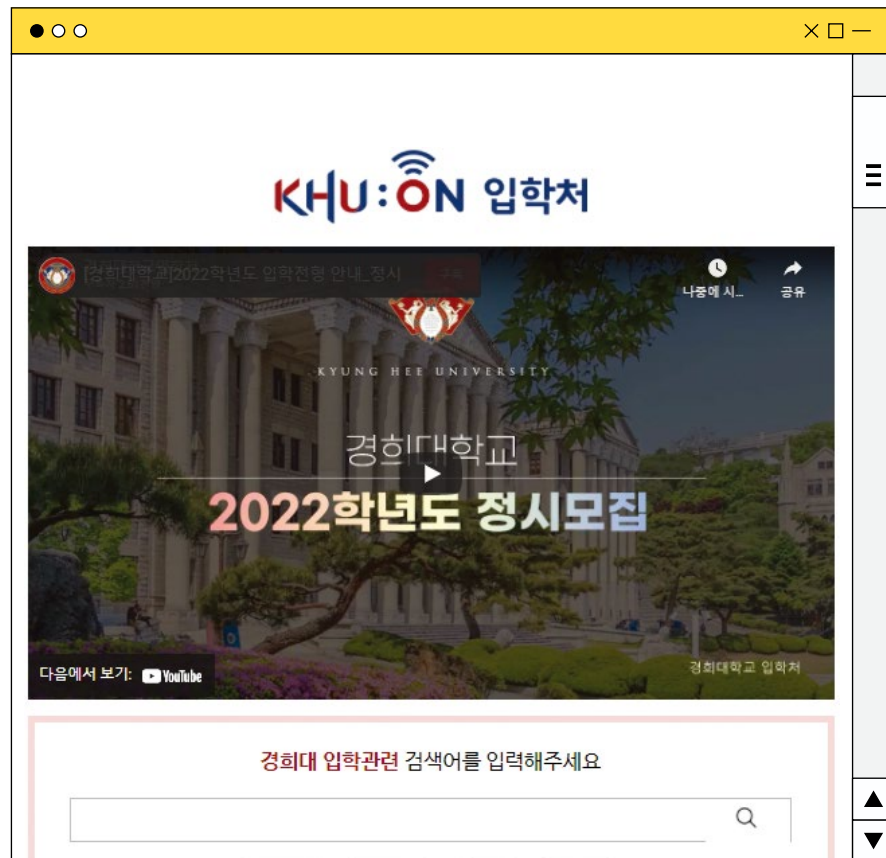


☺ 충북교육청 진학·진로 상담 🖱

충북교육청에서는 학교혁신과 교육과정지원팀에서 진학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이트에서 진학·진로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선택과목에 대한 안내사항이 탑재된 것도 특기할 만한 부분이다.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되어 각 과목별 소개와 내용체계가 나뉘어 안내되어 있다. 이외에도 입시정보-대입설명회 메뉴에는 대교협과 충북진학지도협의회에서 제작한 다양한 입시자료가 탑재되어 있다.



— 입학처 홈페이지²⁾



2) 대입 정보도 '비대면' 대세... '온라인 입학처' 개편도(20210907, 뉴스1, 정지형)

☺ 충청북도진로교육원

충청북도진로교육원에는 진로 교육에 대한 각종 정보가 소개되어 있다. 진로정보 메뉴에는 250여가지 직업에 대한 탐색자료가 탑재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의 진로와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경희대학교

경희대는 비대면 입학 정보안내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험생 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입학처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 경희대는 개편된 온라인 입학처에 비대면 상담과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 자가진단 등 여러 기능을 탑재했다. '실시간 수험생 입학 상담' 같은 경우 매일 온라인으로 진행돼 수험생이 예약한 시간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맞춤형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입학 상담에는 수험생 관심사와 준비도에 따라 인공지능(AI)이 개인별로 맞춤 전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경희대는 또 영상에 익숙한 수험생을 위해 기존 문서 형태로 공개된 각종 정보를 영상 콘텐츠로 바꿨다.

다양한 상담채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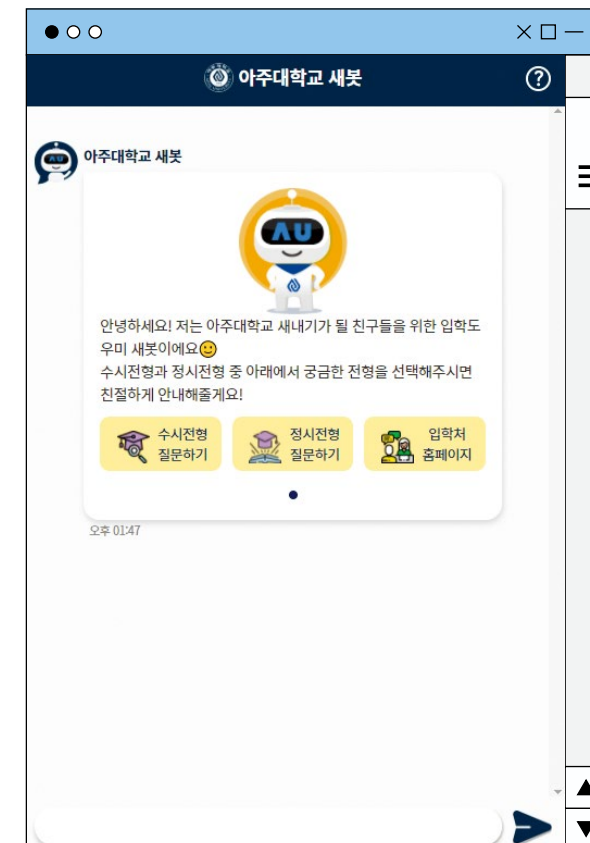
02

수험생이 대학을 방문하거나, 박람회장에서 직접 만나 실시하는 대면상담 방식이 어려워진 지금, 대학들은 다양한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대면상담 이외에도 상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다. 24시간 즉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챗봇, 대면상담만큼 밀도 있는 상담이 가능한 각종 화상상담, 전국구 TOP 진학지도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있는 대교협 전화입시상담까지, 수험생을 기다리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상담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 챗봇

대학들이 비대면 입시상담 서비스를 확대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24시간 입시상담을 해주는 챗봇(Chatbot) 시스템이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챗봇이란 메신저 등에서 일상 언어로 대화할 수 있는 채팅로봇 프로그램이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계속 통화중일 때, 늦은 밤 혹은 주말에 갑자기 문의사항이 생겼을 때, Q&A 게시판 답변을 기다리기 힘들 때, 전화나 화상상담이 부담스러울 때, 궁금한 내용을 모집요강 속에서 찾기 어려울 때, 공지사항 게시글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을 때, 대학에서 제공하는 챗봇을 활용하여 좀 더 빠르게 궁금증을 해소해보자. 아래 챗봇을 도입한 대학들을 소개한다. (2022년 1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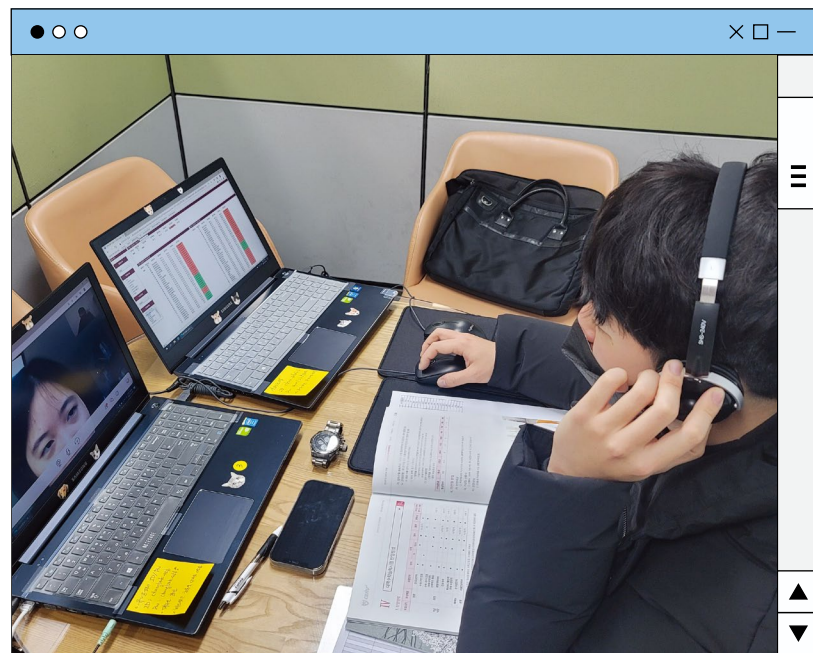


☺ 아주대학교

2019년 6월부터 도입된 아주대학교 입학처 챗봇 '새봇'은 수시·정시 모집 기간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문의에 주말과 휴일 상관없이 24시간 365일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한다. 수험생들은 새봇을 통해 ▲전형별 안내 ▲입시결과 ▲지원자 유의사항 ▲서류 제출 방법 ▲학사, 장학, 주요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화상상담



😊 부경대학교 👉

부경대학교는 2020년 9월부터 24시간 온라인 입학정보 안내 챗봇 시스템 ‘백경이’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백경이’는 수험생들이 모바일 기기나 컴퓨터로 언제든지 접속해 수시모집 관련 궁금증을 묻고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상담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 온라인으로 얼굴을 보며 상담하는 화상 방식도 부담스러워하는 수험생들을 배려한다는 취지로 개발됐다.

‘백경이’에 접속해 입력창에 질문을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 추천 답변을 제공한다. 수시모집 일정, 등록금 등 기본적인 질문은 물론, 궁금한 점을 콕 집어 질문해 답을 얻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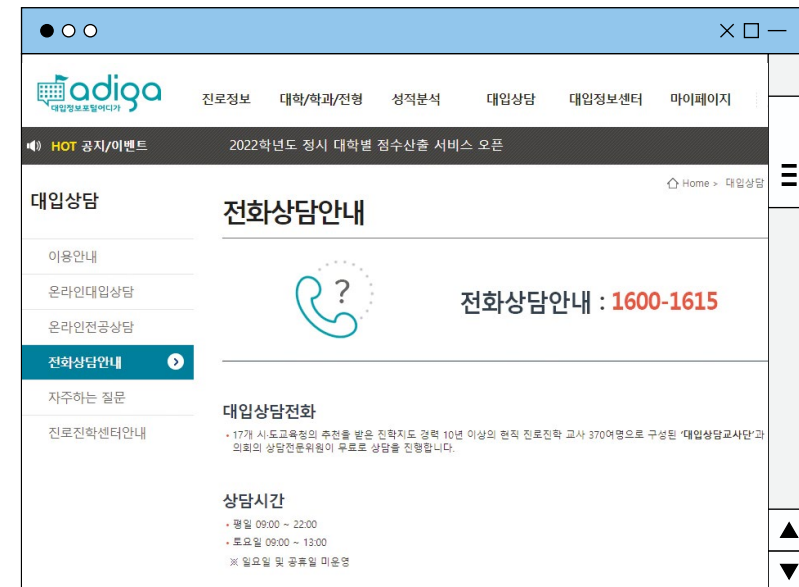
😊 충북대학교 🖱️

충북대학교는 코엑스 대학입학정보박람회 개최되지 않았던 2021학년도 수시·정시모집과 2022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기간 직전에 '유니온페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화상상담을 실시하였다. 충북대에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학부모의 개별신청을 받아 예약된 시간에 화상채팅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평균 20여분의 상담시간으로 전화 및 Q&A상담보다 훨씬 밀도있는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충북대는 추후에도 화상상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충북대 입학정보 사이트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자.

 경기도교육청

고양시는 2021년 8월에 고양시청소년재단, 경기도교육청과 함께한 2022학년도 대입 수시 온라인 입시박람회를 개최했다. 박람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입시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가상공간인 메타버스 플랫폼을 적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다. 박람회는 오전 10시부터 3개 조로 나눠 전국 61개 대학 122명의 입학사정관이 2천여명의 수험생 및 학부모와 1대 1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³⁾

— 대교협 전화상담(1600-1615)



대교협 '대입 상담교사단'(교사단)이 진행하는 전화 입시 상담도 있다. 대입상담 교사단은 10년 이상 진학지도 경력이 있는 현직 진학교사, 진로·진학 상담교사, 진학부장 등 4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평일 09:00 ~ 22:00, 토요일 09:00 ~ 13:00 시간 내에 누구든 전화로 실시간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 진로에 기반한 진학상담, 맞춤형 대입전략, 대입전형, 대입정책, 기타 대학입학 전반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답변받을 수 있다. 일반대학뿐 아니라 전문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입시 상담도 진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농어촌, 특성학교 등 특별전형 상담도 반응이 좋다.⁴⁾

3) 고양시, 메타버스 플랫폼 적용한 온라인 입시박람회 성황리에 마무리(20210809, 중부일보, 양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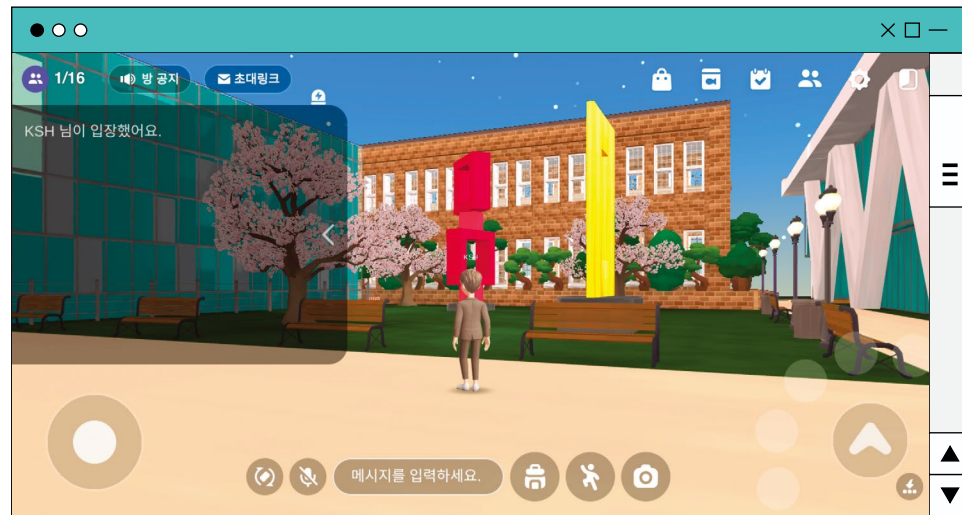
4) '코로나 시국'에도 입시 시계는 돌아간다(20210816, 한겨레, 김지윤)

온라인 설명회

03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프로그램은 단연 수험생 대상 설명회일 것이다. 고교방문 등의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설명회가 대폭 축소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설명회가 등장하였다. 이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설명회는 대면 설명회 못지 않게 비중이 커졌다. 줌 프로그램부터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그리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설명회·박람회까지, 입학정보를 탐색하는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수험생들이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다 준비한 대학들을 살펴보자.

— 메타버스



😊 동아대학교 🖱️

동아대학교는 메타버스 플랫폼인 네이버 '제페토'에 부민캠퍼스 종합강의동과 석당박물관, 석당미술관 등을 실제와 같이 구현했다. 모바일에서 제페토 앱으로 접속한 다음 '월드' 메뉴에서 '동아대학교'를 검색하면 바로 입장할 수 있다. 또한 **메타버스 캠퍼스를 활용한 가상탐방 영상** 📺 도 유튜브 '동아대학교 입학관리처' 채널에 공개했다. 이번 구현된 동아대 메타버스 캠퍼스는 누구나 가상캠퍼스에 방문해 캠퍼스를 둘러볼 수 있도록 하고 수시·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에는 입학사정관과 수험생들이 가상공간에서 만나 입학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⁵⁾



5) 동아대, 학생 재능기부로 '메타버스 캠퍼스' 구축(2021.12.16, 대학저널, 김소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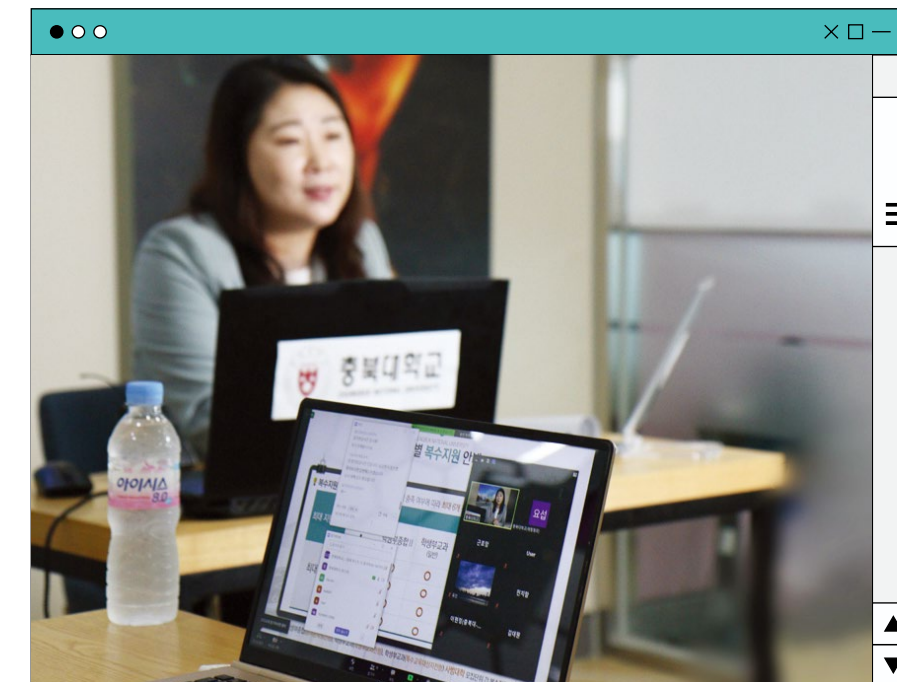
—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 충북대·충남대·순천향대 공동 주관 충청권 학부모 대입전형 연수

충북대·충남대·순천향대는 유튜브 라이브 채널을 통해 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충청권 학부모 대입전형 연수”를 개최했다. 2021년에는 약 100여명의 학부모에게 충북대·충남대·순천향대의 입학전형에 대한 정보는 물론, 대학입학전형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특히 2022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및 학생부교과전형 지원 전략에 대한 강의는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 ZOOM을 활용한 실시간 설명회



😊 충북대학교 🖱️

충북대학교는 2020년부터 'ZOOM을 활용한 수시·정시 대학입학전형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했다. 수시·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 직전에 실시된 이 설명회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오전·오후로 나누어 운영하였다. 충북대는 입학정보 홈페이지에 탑재된 전년도 입시결과를 활용하여 수험생들이 궁금해하는 입시결과의 통계적 분석과 그에 따른 원서지원전략을 안내하였다. 듣지않은 사람들이 후회한다는 충북대 온라인 입학설명회, 다음 기회에는 놓치지 않도록 하자.



대교협 및
각 교육청별
유튜브
채널 운영

04



😊 대학어디가TV 🖱️

대교협 공식 유튜브 채널 '대학어디가TV'에서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홈페이지를 활용한 진로와 직업정보 탐색방법, 대학별 성적 분석방법, 대입지원 시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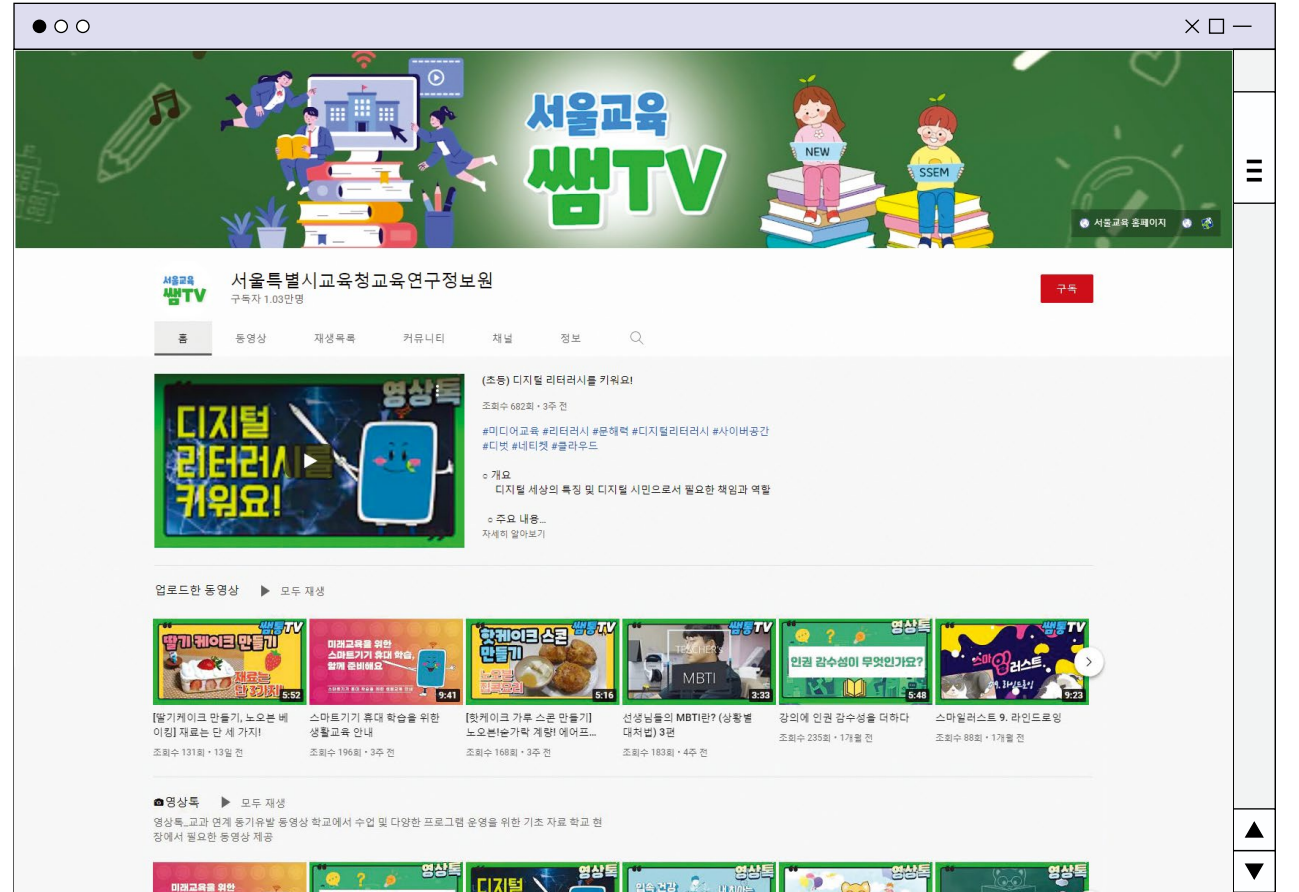


😊 대전대학넷지유TV 🖱️

대전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는 '대전대학넷지유TV(이하 넷지유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중이다. 넷지유TV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본 대입 정보에서부터 대입 진학지도 교사를 위한 심화 정보까지 학생, 학부모, 교사의 다양한 요구와 수요에 맞는 다채롭고 폭넓은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다. 또한, 온라인 실시간 설명회 및 연수 시 유튜브 실시간 채팅 기능을 활용하여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질문을 받아 '대전대입진로진학지원단' 교사들과 대학입학사정관이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주며 궁금증을 즉각적으로 해결해주는 양방향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⁷⁾

6) 대교협 '대입상담교사단' 본격 활동 돌입... 현직 교사 372명 참여(20210325, 대학저널, 백두산)

7) 슬기로운 고등학교 생활! 슬기로운 대학 입시 준비! 대전대학넷지유(Nudge U) TV와 함께해요(2021년 8월호, 대전 교육소식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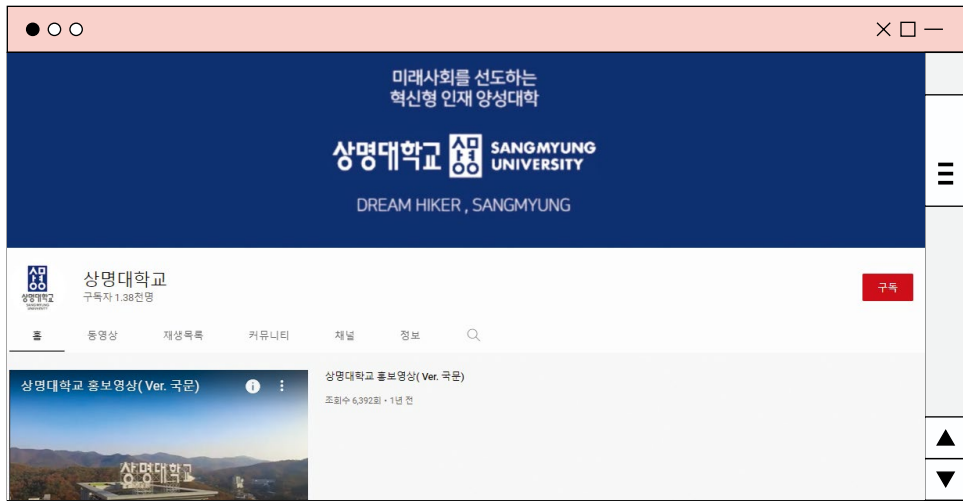
😊 서울교육 쌤TV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유튜브 채널인 '서울교육 쌤TV'에 주목해보자. 입시정보 동영상인 '썸진학' 외에도 교양강좌인 '고전·인문·아카데미'에도 유용한 강좌들이 탑재되어 있다. 학생·학부모 대상 온라인 진학설명회를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운영하며, 강의 중에 채팅창을 통해 질문을 받는다. 설명회 종료 후에도 Q&A 동영상을 제작하고, 그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탑재하는 등 설명회를 놓친 수험생들을 배려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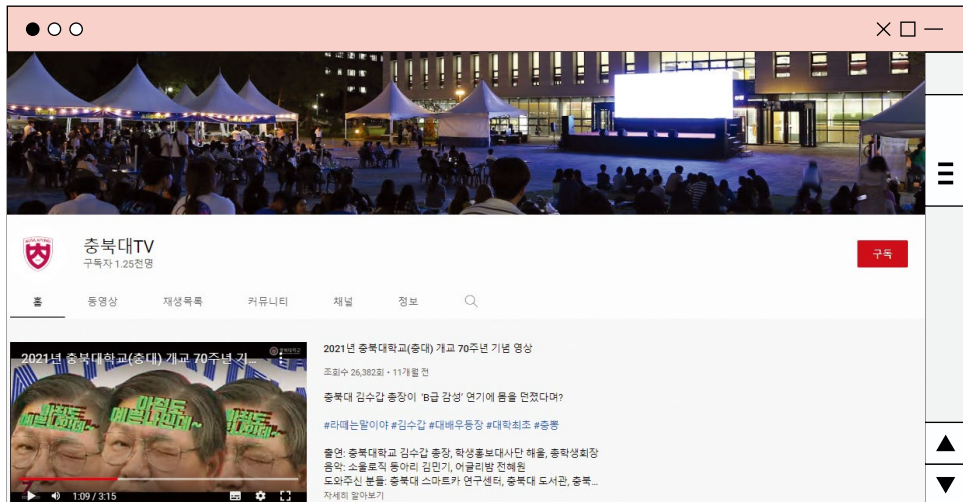


입시와
대학정보

05

😊 [상명대학교](#) 🖱️

상명대학교 전체 학과 재학생들이 예비 신입생을 위해 직접 제작한 학과홍보동영상으로 입시 홍보에 나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홍보동영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을 직접 찾아 상담하기 어려운 예비 신입생들을 위해 재학생과 소속 교수, 졸업생까지 뜻을 같이해 제작됐다. 이 영상들은 상명대 공식 유튜브, 입학홈페이지와 정시모집/편입학 지원 시 모집단위 선택 창에서 확인할 수 있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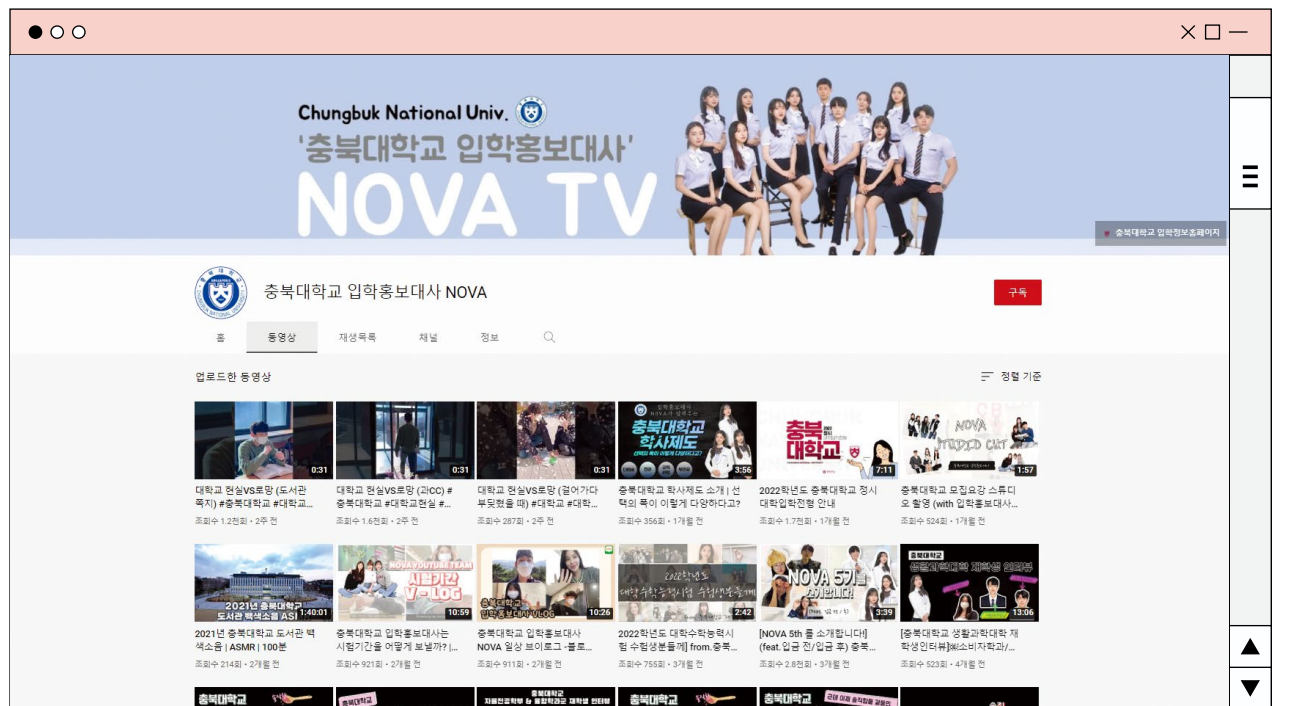
😊 [충북대학교](#) 🖱️

충북대학교의 유튜브는 대학 홍보 채널인 '충북대TV'는 물론, 입학홍보 채널인 '충북대학교 입학홍보대사 NOVA TV(이하 NOVA TV)' 채널도 개설되어 있다.

8) 상명대, 재학생이 직접 참여한 '비대면 입시홍보' 호응(20211227, 데일리한국, 고은정)

[충북대TV](#) 🖱️ 에는 학교 풍경을 소개하거나 충북대 선배들의 일상을 공유하는 '감성영상'은 물론, 충북대의 시설과 학과를 소개하거나 충북대 재학생들의 꿀팁을 공유하는 등 다채로운 충북대학교를 보여주는 '드루와 충북대' 등의 채널로 구성되어 있다. 충북대 TV에서 충북대 주변 맛집, 자취 꿀팁 등을 확인해보고, 충북대를 미리 경험해보자.

아, “한번도 안 본 사람이 있어도 한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영상도 하나 소개한다. ‘[2021년 충북대학교\(충대\) 개교 70주년 기념 영상](#)’ 🖱️ 에서 ‘장관급 최고래퍼’, ‘국립원탑’ 충북대 김수갑 총장님의 화려한 랩 실력을 감상해보자.

😊 [NOVA TV 채널](#) 🖱️

NOVA TV 채널은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는 충북대학교 입학정보 동영상 및 충북대에서 주최하는 입시 관련 설명회 및 특강의 영상과 라이브가 업로드된다. 최신의 충북대 입학정보를 친절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입학홍보대사들의 V-log는 물론 충북대 소개 영상도 탑재되어 있다. 비대면 시국을 반영한 학과 소개 챗페도 있다. 입학홍보대사들이 실시한 재학생 전화인터뷰는 약 30여개의 학과의 재학생들이 본인들의 입시준비내용과 입학 후 학과 생활에 관해 솔직하고 편안하게 전달하고 있다. 그 어느 학과 소개보다 쏙쏙 들어오는 재학생 전화인터뷰를 꼭 들어보자.

오늘 인터넷 사이트, 온라인 상담채널, 온라인 설명회, 대교협 및 각 교육청별 유튜브 채널, 대학 홍보 유튜브 채널의 다섯 꼭지로 비대면 입학정보 탐색방법을 알아보았다. 어떤 진로를 정하던, 진학과 연계된 진로계획을 세워야한다. 입시준비는 첫 번째, 미래의 직업·목표와 연계하여 자신을 알아보면서,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교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이곳에 소개된 여러 컨텐츠 중에서 자신이 보기에 편안한 곳을 짚해두고 즐겨 찾아보자. 그 안에서 여러분의 희망 학과를 탐색하고, 진학하고 싶은 대학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잊지 말자. 내가 원하는 목표가 생겨야 나의 성적, 나의 점수를 유용하게 쓸 수 있다.



함께 여는
역동적 미래
충북대학교



Ⅲ. 전문가 칼럼

충북대학교 대학입학전형 가이드북은
수험생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고1,2 학생의 진로 및 학업설계 방법·방향	70
2024학년도 이후 대입 환경분석	76
미래 직업세계 변화와 진로·직업 준비	84



고1,2 학생의 진로 및 학업설계 방법

어떻게 진로를 탐색
하면 좋을까요?

충북 보은고등학교 교사 **배정숙**

※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진로탐색은 고등학교 생활 전반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과정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 하나가 '진로'이다. 학생들과 상담하면서 '누군가가 해야 할 것을 정해주면 잘 할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라는 말을 들을 때 안타깝고 속상했던 적이 많다. 진로(進路)는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어디로 나아갈지 모른다면 학교생활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고1·2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하거나 대학에서의 전공을 결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자기 주도적인 진로탐색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생활 전반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과정이다.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고등학교 시절을 충실하게 보낸다면 다변화 된 세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학교교육계획을 참고하여 자신의 진로목표에 따른 로드맵을 작성하고,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해 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진로 탐색 방법

진로탐색은 자신의 특성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이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와 관련된 직업과 상급 학교의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이다.

진로 탐색은 일관되고 구체적인수록 좋지만, 학습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로를 구체화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진로의 폭을 좁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먼저 계열을 선택하는 것이다. 인문 계열, 사회 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학·보건계열, 교육계열, 예·체능 계열 등을 탐색 한 후에 자신이 좋아하는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면서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로를 탐색해 보는 것이 좋다. 특히 진로진학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로와 진학을 함께 고민하고, 그 내용을 가족들과 공유하는 것도 보다 실질적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대학계열		관련학과
인문계열	언어·문학계열	국어국문학과, 동양어학과, 서양어학과, 영어영문학과, 통번역학과 등
	인문과학계열	고고학과, 문헌정보학과, 문화재보존학과, 문화콘텐츠학과, 사학과, 심리학과, 인류학과, 철학과 등
사회계열	상관계열	경영학과, 경제학과, 금융보험학과, 무역·유통학과, 세무·회계학과, 호텔·관광경영학과 등
	광고·언론정보계열	광고홍보학과, 신문방송학과, 정보미디어학과 등
	사회과학계열	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아동학과, 지리학과, 항공서비스학과 등
자연계열	법·행정계열	국제학과, 법학과, 보건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등
	자연과학계열	대기과학과, 물리학과, 생명과학과, 수학과, 지질학과, 천문학과, 통계학과, 화학과 등
	생활과학계열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등
공학계열	농림계열	농생물학과, 동물자원학과, 원예학과, 조경학과 등
	기계·전자계열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자동차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항공운항학과 등
	정보·컴퓨터계열	멀티미디어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등
의학·보건계열	건축·환경계열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교통공학과, 도시공학과, 토목공학과, 해양공학과, 환경공학과 등
	화학·생명계열	생명공학과, 섬유공학과, 식품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에너지자원공학과, 재료공학과, 화장품과학과, 화학공학과 등
	보건계열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응급구조학과, 임상병리학과, 재활치료학과, 치기공학과, 치위생학과 등
교육계열	의약학 계열	수의학과, 의예과, 치의예과, 한의예과, 약학
	교육계열	언어 교과 교육과, 사회 교과 교육과, 수학교육과, 과학 교과 교육과, 교육학과, 초등교육과, 유아교육과 등
예능계열		공간연출과, 공업디자인과, 건강관리학과, 경호학과, 공연예술과, 광고디자인과, 그래픽디자인과, 동양화과, 디자인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모델과, 뷰티미용학과, 사진영상학과 등



진로 변경에 대한 오해

진로는 '화학자 → 화학공학연구원 → 유기화학전문가'처럼 학년이 올라갈수록 구체화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진로탐색 중에 처음 설정했던 진로와 전혀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있다.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성장하면서 진로 희망이 변경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진로희망사항이 변경된 사실보다는 진로 희망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변경된 계기와 이를 위해 어떤 준비를 했고, 어떤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 했는지, 어떤 활동에 주력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냈는지가 중요하다.

진로탐색 과정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학생, 진로를 정했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학생이라면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진로를 탐색해 볼 수 있다.

과정	내용	참고사이트
STEP 1. 자기이해	흥미, 적성, 성격, 가치관	커리어넷  워크넷  국민대 입학처 진로적성 검색 프로그램 
STEP 2. 직업탐색	하는 일, 되는 길, 관련전공, 연봉, 필요한 역량 등	커리어넷  워크넷 
STEP 3. 학과탐색	학과 인재상, 교육과정, 졸업 후 진로, 학과 관련 역량 등	워크넷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대학별 전공안내책자(전공가이드북)
STEP 4. 과목선택	과목성격, 목표, 교과역량, 관련학과, 관련 직업	대학별 전공안내책자(전공가이드북) 시도교육청 선택과목 안내
STEP 5. 학업계획	구체적 단계적인 활동 및 학업계획	대학별 가이드북, 대학별 추천도서, TED  , MOOC  , NIE, 학술사이트 등



진로는 진학과 연결된다.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진로탐색이 잘 이루어져야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독서활동을 자신의 진로와 자연스럽게 연결 시킬 수 있으며, 대입 진로설계 또한 용이해진다. 이러한 단계를 제대로 수행한다면 전공 선택과 직업 선택도 훨씬 수월할 것이다.



STEP 1. 자기이해

여러 가지 진로심리검사로 자신을 알아본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등학교 1학년은 '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탐구'가 필요한 시기이다. 진로탐색은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기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자기이해를 위해 학교에서는 진로적성검사, MBTI/애니어그램 성격유형검사, 진로캠프 등 개인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주는 다양한 검사를 제공하고 있다. 열거된 검사 이외에도 학생 스스로 다양한 검사를 실시해 보고 검사 결과를 통해 자신의 특성에 적합한 관심분야의 직업을 찾아볼 수 있다.





진로심리검사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커리어넷의 '[아로플러스](#)' 진로심리검사 , 워크넷의 [청소년 대상 직업심리검사](#) , 대학입학처에서 제공하는 진로진단테스트, 진로적성검색 프로그램 등은 진로에 고민이 많은 고1 학생들이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검사들이다.



STEP 2. 직업탐색

내가 알아본 직업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자.
“이 직업은 어떤 일을 하는 걸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직업세계의 변화를 예측하고, 장래성을 고려하면서, 직업에 관한 객관적인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관심있는 직업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맞는지, 나에게 적합한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전문도서, 유튜브, 직업인들의 강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이 가능하다.

참고로 '워크넷 → 직업-진로 → 직업정보 → [직업동영상VR](#) , [직업인 인터뷰](#) , [다양한 직업세계](#) , [미래직업탐구](#) 

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분야에 걸친 다양한 직업의 생생한 현장모습 및 종사자 인터뷰, 이색 직업, 신종 직업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직업탐색 후 관심 직업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 진로독서를 추가할 수 있다. 독서에 기반한 학교 활동은 지적 호기심, 학업역량, 태도, 진로 성숙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STEP 3. 학과탐색

자신의 특성을 알고,
직업정보를 탐색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업과 관련된 학과 정보를 알아야 한다.
“이 직업을 위해서 어떤 공부가 필요할까?”

각 대학의 입학처에서 제공하는 전공안내책자(혹은 전공가이드북)는 매우 유용하다. 예를들어 고려대학교 ‘학과소개 영상’과 ‘동영상 강의’(입학처 → 진로진학 상담센터 → ‘학과소개영상’)에는 고등학생 대상 전공소개 영상이 탑재되어 있다. 특히 최근 연구와 향후 학과의 발전 방향 등을 안내하고 있어 학과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된다. 각 대학별로 제공하는 전공가이드북을 참고해서 학과 인재상, 전공교육과정, 세부 전공분야, 추천도서 등을 살펴본다면 원하는 학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워크넷 → 학과정보 → ‘[전공진로가이드](#)’에서는 각 전공에서 다루는 학업 내용, 졸업 후 진출할 수 있는 주요 직업, 전공과 인접한 직업 등을 소개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각 직업별 직무 내용과 특성, 향후 전망과 준비 방법, 탐색한 직업과 연계된 전공학과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학과탐색활동 후에는 그 결과를 수업시간의 탐구주제나 교과와 내용과 연계 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한층 더 넓어진 시야를 가지고 풍성한 학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STEP 4. 과목선택

전공학과 및 관심 분야를 학습할 수 있는 과목선택이 필요하다.
“내가 원하는 학과에 가려면 어떤 공부를 먼저 해야할까?”

대학은 기초 학업역량을 탄탄하게 갖추고 있는 학생을 선호한다. 따라서 대학에서 전공하고자 하는 공부에 필요한 과목이라면 어렵더라도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는 주도성이 필요하다. 선택과목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정답은 없다. 과목선택은 고교 3년 동안 자신의 학업역량을 성장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 삶에서 부딪치는 많은 문제들에 배운 지식을 적용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곧 성장이다.

STEP 5. 학업계획

직업과 학과탐색, 학교교육계획을 참고하여
학업계획을 수립한다.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는 진로학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교과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어떻게 구성할지 담임선생님, 진로선생님, 교과선생님, 그리고 선배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진로학업 설계를 해 보는 것이 좋다. 진로가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흥미와 관심분야를 토대로 학업을 설계하거나 선택한 과목을 이수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보다 깊이있게 고민하고 구체화해 나갈 수 있다. 여러 활동을 통해 ‘아 이게 내 진로가 아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배움을 얻는 것이다. 진로와 진학에 대한 탐색은 여러 경로를 통해 고민을 확장해 보아야 한다. 충실한 학교생활을 통해 자신의 진로·진학에 맞는 학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2학년 시기에는, 자신이 구체화한 목표 또는 분야와 부합하는 활동이라면 박람회, 강연, 전시, 봉사활동, 특강 등 교내·외를 막론하고 다양하게 경험해보길 권한다. 학교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학업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경험해 보는 것은, 진로가 변경 되더라도 큰 어려움 없이 학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진로성숙도를 높일 수 있다.

🔍 학습·진로·입시 만능 key, 독서

진로독서는 진로탐색 및 진로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준다.

학업계획 실천(모둠과제, 수행평가, 동아리활동 등)에 진로독서를 권한다.

1,2학년 시기에는 다독(多讀)으로 교과와 연계해 과목의 주요 개념, 인물, 현상 등을 다룬 전공분야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2,3학년 시기는 정독(精讀)으로 내 목표, 분야에 대한 심화 지식을 기르는 것이 좋다. 독서활동은 주제 탐구활동, 각종대회, 수행평가 등의 활동과 [TED](#), [MOOC](#), NIE, 학술사이트 등의 다양한 매체의 활용과 연계한 심화 학습도 가능하다.

특정 학과나 직업 위주로 좁게 책을 선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간호학과를 지망한다면 간호사 관련 책 외에 의료 시스템이나 생명윤리, 심리학, 철학 등 보다 넓은 시야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책과 해당 직업에 필요한 역량과 소양을 쌓을 수 있는 책도 필요하다.

🔍 진로·진학 탐색 병행이 중요

진로가 인생의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한다면, 진학은 진로에 맞는 학습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로와 진학 두 가지를 일관성 있게 탐색해야 한다.

대학진학이 인생의 최종목표는 아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만들어 갈 진로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고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 진학에 진로 탐색을 병행하면 학업 활동에 동기부여가 되고, 자기주도성이 높아진다. 진로탐색으로 진로에 따른 ‘스토리텔링’ 형태의 학교활동은 진학에서도 유리하게 활용된다. 진로·진학의 탐색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진학보다 진중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 바로 진로 탐색이다.

고등학교 3년의 학업을 설계하는 주인공은 바로 학생 자신이다. 진로탐색과 학교교육 활동 경험은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관리 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자신만의 특징과 장점을 이해하고 발전시켜 변화하는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2024학년도 이후 대입환경 분석

경기 대화고등학교 교사 최승후



들어가며

2019년 11월 28일에 발표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이후 대입환경은 학년이 바뀔 때마다 예측가능성과 지속성을 잃고 격랑 속에 빠져들었다. 여기에 2020년부터 실시된 블라인드 서류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기재 영역 축소는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을 하염없이 심연으로 가라앉히고 있다.

학종의 불공정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다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100% 선발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공정성의 잣대를 교육적 타당도로 바꿔서 적용하면 학교 안 교육현상이 보인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재능이나 복을 다 가질 수는 없다. 화려한 꽃들은 열매가 빈약하듯이 학생 개개인마다 재능과 끼는 다른 법인데, 수능 성적이 높은 학생이 대학에서도 잘할 거라는 예언타당도는 맞지 않다. 이는 대학의 종단연구가 잘 뒷받침해 준다. 학종으로 들어온 학생 대부분이 학점과 만족도가 높은 반면 전과·자퇴율은 낮다고 한다. 특히 교내활동에서 주도적인 리더십을 보인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수능이 결과 중심이라면 학종은 상대적으로 과정 중심이자 성장 중심이다. 그만큼 학생들이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뜻이다. 특히 전체 고등학교의 70%가 넘는 일반고의 위기가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학종은 더욱더 중요해졌다. 아프리카 격언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학종은 ‘개인’의 역량도 평가하지만 ‘우리’에 더 큰 방점을 찍는다. 이 전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이 강조되는 이유이다. 또한 이 전형은 특히 인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바른 태도와 생활을 유도하는 효과가 커서 인성 교육 강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듯 학종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것도 사실이다. 첫째, 어떤 고등학교에 입학하느냐에 따라 또는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입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즉, 학교 간의 교육과정과 진로·진학 프로그램의 차이 그리고 교사의 열정에 따라 학생의 입시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학생부 조작 사건처럼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학생부와 서류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셋째, 자기소개서(이하 자소서) 문항의 축소(2024학년도부터는 폐지)와 서류 간소화 그리고 일부 대학의 면접 폐지로 학생 부담이 완화되었지만, 객관적인 검증 기능이 약화됐다. 넷째, 비교과 활동이 우수하여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대학의 추수지도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섯째, 대학의 평가시스템이나 평가역량에 비해 학종으로 선발되는 인원이 과다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런 학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2018년 8월 17일)’을 발표했다. 고교현장에서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 개선안에서 밝힌 로드맵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현장에서 충실히 실현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예기치 않게 2019년 11월 28일에 발표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정성평가를 위축시키는 전조를 보인다.

정치적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대입 제도와 교육과정에 손을 대면 교육은 ‘오년지대계’가 될 뿐이다. 얼마 남지도 않은 비교과를 축소하고 자소서를 폐지하면, 학생의 활동기록을 보고 선발해야 하는 대학은 뭘 보고 뽑아야 할지 난감하기만 하다. 기록을 평가하는 학종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학생부 간소화뿐만 아니라 학생부 항목의 재구조화가 선행돼야 한다. 학생부 간소화는 자칫 알맹이 없는 학생부의 하향평준화를 이끌 수 있다. 부족한 자료와 정보는 부실한 평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학종의 근간을 바꾸기보다는 지적된 문제점인 공정성과 객관성을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줄 세우지 않는 교육의 출발점에 학종이 서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잊는다. 수능 시절에도 입시비리와 공정성 문제는 끊임없이 드러났다. 수능도 학종도 공정하지 못하다.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도 과열경쟁과 과잉변별을 줄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적으로 타당한 평가도구는 학생부종합전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2024학년도(2022년 고2 학생이 대입을 치르는 해) 이후 대입환경 분석을 ‘학생부 기재 항목의 축소’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를 중심으로 논하려고 한다.



학생부 기재 항목 축소

학종은 지원자의 학교생활 기록을 평가하는 전형이다. 학생부에 관한 이해가 중요한 이유다. 학종의 핵심 평가요소인 학생부에는 총 8개의 항목이 있다. 학생부에 기재되는 자료는 수시모집은 8월 31일까지이며, 정시모집은 11월 30일까지 기록된 모든 내용이다. 학년이나 학기 기준이 아님을 유념하자.

① 인적·학적사항

2021학년도(2020년) 대입부터 확대 시행된 대입 블라인드 서류 평가 때문에 지원자의 성명, 출신고교명, 출신지역은 대학에 제공되지 않는다. 학생부에는 학생이 재학(또는 졸업 예정)한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학교명, 재단명, 학교 축제명, 학교 별칭 등 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 일체)은 ‘인적·학적사항’, 수상경력의 ‘수여기관’,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제외한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다.

② 출결상황

출결상황은 근면성, 성실성, 체력을 파악하는 항목이다. 평가자들이 최근 질병 근태의 경우도 학업지속력 때문에 꼼꼼히 보기 시작했고 면접에서 확인하므로 작위적인 질병 결석은 안 하는 것이 좋다. 2019년 기준 모두 ‘무단’이란 용어가 ‘미인정’이란 용어로 바뀌었다.

③ 수상경력

교내 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 그리고 자격증 명칭 및 취득 사실은 ‘수상경력’ 또는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이외 항목 입력이 불가하다. 2022년 고3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 시 수상경력은 학생별 한 학기에 한 개씩만 제공되며, 고2 이하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 시 ‘수상경력’은 제공하지 않는다. N수생도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학기당 1개씩 모든 대학에 동일한 내용으로 제출한다. 따라서 무분별한 대회 참가보다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자신의 진로와 관련 있는 교과와 교과 연계 대회를 꾸준히 참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원할 모집단위와 연계성이 높은 교과목을 학생들에게 매핑하게 하는 진로탐색활동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동일 학기에 교과우수상과 교내대회 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교내대회 상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교과 성적은 평가자가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도 특정 학기에 상이 없거나 물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상 비율은 최대치인 20%로 맞추고 학기별로 상이 물리지 않도록 수상 배치를 조정할 것을 권한다. 또한, 수시모집 지원 시 학기별 수상을 배치할 때는 지원 대학의 인재상에 맞게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수상을 고르게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요즘 상위권 대학은 학업역량 수상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④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교 재학 중 취득한 자격증은 누가해 기록할 수 있다.
대입자료로는 미제공된다.

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총 네 가지 항목이 있다.



가. 자율활동

담임교사가 기재하는 자율활동의 특기사항(500자)은 학급 특색활동 중심의 개별화 기록이 핵심이다. 학교·학년·학년 활동을 복사해서 붙이기를 지양해야 한다. 자율활동 항목은 담임교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전공적합성 활동의 알토란이 된다. 자율활동의 특기사항(500자)은 학교·학년·학급 특색활동 중 진로와 연계한 활동들을 기재하는 것이 좋다. 대학들이 지원자의 전공적합성을 면밀하게 보는 항목이므로 진로 분야 독서·보고서·발표 등의 ‘주제 탐구 활동’이 적합하다. 진로활동과 마찬가지로 개별화된 진로활동이라면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계획서를 제출한 후,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하길 권한다.

나. 동아리활동

2021년 고3부터 자율동아리는 연간 한 개만 허용되므로 정규동아리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정규동아리를 통해 하지 못한 활동을 자율동아리에서 분담할 수 있고 자소서에서도 기재 가능하므로 자율동아리는 가입하는 것이 좋다. 동아리 활동 후에는 반드시 보고서와 발표가 병행돼야 한다. 자율동아리 입력 대상 학생 범위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2021년부터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정규교육과정 외 청소년단체 활동’ 기록은 2021년 고2, 고3은 단체명만 입력하며, 특기 사항은 미입력한다. 2021년 고1은 단체명, 특기사항 모두 미입력한다.

다. 봉사활동

2022학년도(2022년 대1 학생) 대입부터는 교사의 관찰이 어려운 봉사활동의 성격을 고려해 학생부에 봉사활동 특기사항(500자)은 삭제하고, 실적은 현행대로 입력한다. 그래도 봉사시간·장소는 기재되므로 진정성 있는 꾸준한 봉사는 권하고 싶다. 학생부 기재 내용을 간소화함에 따라 대학들이 지원자를 평가할 기초자료가 부실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성적인 특기사항 내용 없이 정량적인 봉사활동 실적만을 평가하는 것은 학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2024학년도(2022년 고2 학생) 대입부터는 봉사활동이 최대 위기를 맞는다. 상급학교 진학 시 ‘학교’ 봉사활동 실적은 제공하나,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봉사활동 남발을 막기 위한 교육책이라고 하나 빈대 잡으려다 학종을 잃은 격이다. 그런데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은 대입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아서 이 문구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일부 사교육업체와 단위학교에서는 지역사회 연계한 활동이나 더 나아가 MOU를 맺은 봉사활동이 학교교육계획서에 의거하고 교사가 동행한다면, 학교봉사활동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독해하고 있다. 현장의 교사들은 학생들을 아끼는 마음에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봉사활동을 양산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교육부의 정확한 해석이 필요해 보이는 이유다. 그전에는 ‘멘토-멘티’, ‘급식 도우미’, ‘포레상담’ 등 양질의 교내 봉사활동 종류를 늘리고 내실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2024학년도부터는 개인봉사활동이 대입 자료로 미제공되므로, 학교봉사활동의 중요성은 한층 강조되고 있다. 아울러 2021년부터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봉사활동의 경우,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학생의 특기사항은 필요 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하 종합의견)’란에 입력 가능하다.

라. 진로활동

2021년부터 진로활동 영역 ‘특기사항’란 참고자료는 학급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 담당교사, 진로전담교사의 상담 및 관찰·평가 내용으로 범위가 명료화됐다. 2021년 고3부터 진로 ‘희망 사유’가 ‘희망 분야’로 바뀌었으며 대학에는 제공되지 않는다. 진로활동의 특기사항(700자)은 학교·학년·학급 특색활동 중 진로와 연계한 활동들을 기재하는 것이 좋다. 대학들이 지원자의 전공적합성을 면밀하게 보는 항목이므로 진로 분야 독서·보고서·발표 등의 ‘주제 탐구 활동’이 적합하다. 자율활동과 마찬가지로 개별화된 진로활동이라면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계획서를 제출한 후,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하길 권한다.



⑥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학생부 교과성적 중 공통 과목과 일반선택 과목은 9등급제 석차등급으로 표시된다. 진로선택 과목의 경우 [표 1]과 같이 2018년 고교 입학생은 성적이 등급으로 산출되지만, 2019년 입학생부터는 성취평가제가 적용돼 A, B, C 3단계로 평가한다. 즉, 2022학년도 대입부터는 진로선택 과목은 석차등급 및 표준편차를 미제공하고, 원점수·평균·성취도·수강자수만 제공한다. 성취수준별 학생비율은 추가로 제공한다.

[표 1] 2019년 입학생(2022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되는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 표기 방법

학교생활기록부(현행)					학교생활기록부(개선)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석차등급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 (수강자수)	성취수준 학생비율
고전 읽기	4	95/70 (10)	A (532)	1	고전 읽기	4	95/70	A (532)	A(32.4%) B(30.9%) C(36.7%)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하 교과 세특)’에는 교내대회 참여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 ‘K-MOOC, MOOC, KOCW’ 기재를 할 수 없다. 자율탐구 활동으로 작성한 연구보고서(소논문) 일체도 기재 불가다. 그리고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 2022년 고2 학생)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영재·발명교육 실적은 미제공된다.

2021년부터는 교과 세특은 ‘모든 교과(군)에 대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하며, 교과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은 그 사유를 입력한다. ‘학교간공동교육과정’, ‘주문형강좌’, ‘온라인공동교육과정’ 등 추가교육과정 교과 수업도 교과 세특 500자 입력이 가능하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교과 세특에 방과후학교는 미기재한다. 모의고사,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의 원점수, 석차, 석차 등급, 백분위 등 성적 관련 내용 역시 입력할 수 없다.

위탁교육기관 등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되 입력 내용은 기재요령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입력하면 된다.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에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로 학생부 기재 시 활용 가능한 자료는 ① 동료평가서, ② 자기평가서, ③수업산출물(수평평가 결과물 포함), ④ 소감문, ⑤ 독후감 사례로 한정한다.

교과 세특 입력 시에는 교사의 수업 설계, 수업 내용의 단순 나열, 다른 학생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내용, 추상적 표현 등은 지양해야 한다. 교과 세특에는 학생이 개별화, 구체화 돼 드러나야 한다. ‘할 수 있음’, ‘할 줄 앎’ 등의 직접적인 활동 위주의 행동 서술어로 맺음말을 기재하면 학생의 역량이 잘 드러날 수 있다.

⑦ 독서활동상황

입력 가능한 범위는 ISBN에 기재된 도서에 한해 기재 가능하다. ISBN에 기재된 도서라면 논문 역시 입력이 가능하다. 다만, 정기 간행물은 입력할 수 없다. 원서와 한국어 번역본을 모두 읽은 경우 중복하여 입력하는 것을 금지한다. 2024학년도 대입(2022년 고2 학생, 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독서활동상황’은 미제공된다. 그렇다고 독서활동이 불필요하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 도서명과 저자를 ‘교과 세특’, ‘창의적 체험활동’에 입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의 평가자가 지원자의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사회성)을 학생부에서 파악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중요한 항목임은 불변이다. 그리고 독서활동은 특정 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드러내는 것이 좋다. 관심 진로 분야의 인물, 사상, 주제, 쟁점 등을 비교·대조한 독서 심화탐구활동을 교과세특, 자율활동, 진로활동에 기재해 주면 좋다. 자소서와 면접 준비를 위해 독서기록장에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필수다.

⑧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2021년 고3부터는 추천서가 폐지되기 때문에 평가자가 종합의견만 읽고도 충분히 지원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 정성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정량적인 학업역량에 대한 총체적 정보가 종합의견에 기록되는 것이 핵심이다. 대학의 공통된 핵심 평가요소인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인성(사회성)’ 등으로 나누어 기재하는 방식을 추천하고 싶다.

현장의 교사들은 학종이 생긴 이후 학생부 기록 부담이 매우 커진 것을 토로하고 있다. 평가의 황금률 지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지나치게 몰입하는 순간 객관성을 잃게 되고, 대상에서 너무 멀어지는 순간 감정이입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평가자 역시 학교마다 기재 형식과 내용이 천차만별이어서 혼란스럽긴 매한가지다. 기록의 틀을 좀 더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는 것이 학종의 학교·교사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학종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면 학생부를 현장의 교수학습활동에 맞게 ‘재구조화’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요즈음 ‘적는 자 만이 살아남는다’라는 말을 줄여 ‘적자생존’이라고 한다는 농담이 있다. 이 우스갯소리처럼 학생부에 적혀 있어야 학종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말을 새겼으면 좋겠다. ‘기록이 기억을 이긴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표 2] 2021학년도~2024학년도 학생부 주요항목 변화

학년도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수상경력
2021	• 연간 500자 • 정규·자율동아리 기재 청소년단체활동 기재 • 소논문 기재 가능	• 특기사항 미기재	• 연간 700자	• 모든 교내 수상 기재
2022 · 2023	• 연간 500자 • 자율동아리 연간 1개만 기재 (30자) • 청소년단체활동 단체명만 기재 • 소논문 기재 금지	• 특기사항 미기재	• 연간 700자 • 진로희망분야 대입 미반영	• 교내수상 학기당1건만 대입 반영 (수시 5건, 정시 6건)
2024	• 연간 500자 • 자율동아리 미제공 • 정규교육과정 이외 ‘청소년 단체 활동’ 미제공 • 소논문 기재 금지	• 개인 봉사 미제공	• 연간 700자 • 진로희망분야 대입 미반영	• 수상 경력 미제공

학년도	교과활동	종합의견	자율활동	독서활동
2021	• 과목당 500자 • 진로선택과목 석차등급, 표준편차, 성취도 모두 제공	• 연간 500자	• 연간 500자	• 도서명과 저자 제공
2022 · 2023	• 과목당 500자 • 방과후활동(수강)내용 미기재 • 진로선택과목 석차등급 및 표준편차 미산출, 성취도만 제공	• 연간 500자	• 연간 500자	• 도서명과 저자 제공
2024	• 과목당 500자 • 방과후활동(수강)내용 미기재 • 진로선택과목 석차등급 및 표준편차 미산출, 성취도만 제공	• 연간 500자	• 연간 500자	• 도서명과 저자 미제공



🎓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한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다. 고교학점제는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여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는 자기주도적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르기 위한 고교 교육으로 전환을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정책이다. 학생의 진로에 맞춘 학업 설계를 바탕으로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듣는 성장 중심의 학사 운영 체제인 고교학점제는, 2020년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도입 기반을 마련했으며, 2022년에는 특성화고에서 실시된다. 2023년(2022년 현 중3이 고1이 되는 해)에는 일반계고에도 일부 요소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시행하고, 2025년부터 완성된 형태로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표 3]과 같이 2023년(고1)부터는 수업량 적정화(204단위→192학점), 공통과목 중 국어·수학·영어에 대한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지도 등을 적용해, 2025년 미이수제·성취평가제(선택과목) 도입을 준비한다. 즉, 2023학년도 고교 1학년부터 교육과정에 학점제가 일부 적용된다. 고등학교 수업량 기준인 ‘단위’가 ‘학점’으로 전환되고, 학습량 적정화와 학사 운영 유연성 제고를 위해 졸업기준이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조정되며,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은 각각 174학점, 18학점으로 조정된다. 교과 수업횟수는 감축되나, 현행 수업일수(190일 이상, 초·중·고교교육법시행령 제45)는 유지하여 학교가 교과 융합 수업, 미이수 보충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총 이수 학점 조정을 통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학교 일과 시간 중에 이루어질 수 있어 학생과 교사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3] 고등학교 학사 운영 체제의 변화

	현재	단계적 이행		전면 적용
	2021년	2022년	2023~24년	2025년~
수업량 기준	단위		학점	학점
1학점 수업량	50분 17(16+1)회		50분 17(16+1*)회	50분 16회*
총 이수학점(이수시간)	204단위(2,890시간)		192학점(2,720시간)	192학점(2,560시간)
교과·창체 비중	교과 180 / 창체 24		교과 174 / 창체 18	교과 174 / 창체 18

학생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 과목구조를 [표 4]와 같이 개편하는데, 특목고에서 개설한 전문교과 I 을 보통교과로 편제하고, 선택과목을 일반·융합·진로과목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표 4] 과목구조 개편

[현행 고교 과목구조]		[개편안(2025학년도~)]	
교과	과목	교과	과목
보통 교과	공통과목	보통 교과	공통과목
	일반선택과목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		융합선택과목
전문교과	전문교과 I (심화과목)	전문교과	진로선택과목
	전문교과 II(직업과목)		전문공통/전공일반/전공실무

또한, 학사 운영은 학점 이수 기반으로 바뀌게 된다.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각 학년 과정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하면 진급과 졸업이 가능하나, [표 5]와 같이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는 학점 기반의 졸업제도가 도입된다. 학생이 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과목출석률(수업횟수의 2/3 이상)과 학업성취율(40%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3년간 누적 학점이 192학점 이상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된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미이수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미이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충이수를 통해 학점을 취득하도록 하여, 최소 학업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책임교육을 강화한다.

[표 5] 미이수 제도 도입

[현행]		[향후(2025학년도~)]	
성취율	성취도	성취율	성취도
90%이상	A	90%이상	A
80%이상~ 90% 미만	B	80%이상 ~ 90% 미만	B
70% 이상 ~ 80%미만	C	70% 이상 ~ 80%미만	C
60% 이상~ 70% 미만	D	60% 이상~ 70% 미만	D
60% 미만	E	40% 이상~ 60%미만	E
		40% 미만	I

↑ 이수
↓ 미이수

* 미이수 과목에 통상 F학점을 부여하나, 단어의 의미(Fail)를 고려하여 I(Incomplete) 사용

학점제 도입에 맞춰 석차등급 중심의 현행 내신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2019학년도부터 보통교과 진로선택과목에 적용되고 있는 성취평가제를 [표 6]과 같이2025학년도(고1~)부터 모든 선택과목으로 확대 도입하여, 학생들이 학업 성취수준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 역시 도울 예정이다. 이는, 석차등급제에서는 수강 인원 수 등에 따라 내신등급의 유불리가 발생하여,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이라도 수강인원이 적은 경우 수강을 기피하는 등 학생들의 선택이 왜곡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표 6] 고교 내신성적 산출 방식의 변화(보통교과)

[현행(2019~)]		[향후(2025~)]	
교과	성적 산출	교과	성적 산출
공통과목 일반선택과목	성취도(A,B,C,D,E), 석차등급 병기	공통과목	성취도(A,B,C,D,E, I), 석차등급 병기
진로선택과목	성취도(A,B,C) 표기	선택과목 (일반/ 융합/ 진로)	성취도(A,B,C,D,E, I) 표기

[표 7]과 같이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 수강자 수, 성취도별 학생 비율을 산출한다. 따라서 고1 공통과목만 성취도와 석차등급을 병행하고, 고2,3 때 선택과목은 A~E 5단계 성취도만 부여하기 때문에 고1 과정이 중요해졌다. 이로 인해 고1 과정과 바로 연계되는 중3 과정의 공부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정리하면, 2025년 고교학점제 이전에는 고1 때는 9등급제 석차등급을, 고2,3 때는 일반선택과목은 9등급제 석차등급을, 진로선택과목은 A~C 3단계 성취도를 반영한다. 반면, 고교학점제 이후는 고1 때는 9등급제 석차등급을, 고2,3 때는 일반선택과목과 진로선택과목 모두 A~E 5단계 성취도를 반영한다.

[표 7] 성취평가제 확대(2025학년도~)에 따른 성적 산출 방식(예시)

과목명	학점 수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수강자 수)	성취도별 학생 비율
정치와 법	4	85/64.4	B(55)	A(7,3)
				B(30,9)
				C(12,7)
				D(30,9)
				E(18,2)

우리는 고교학점제에 관한 낯선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고교학점제가 교육과정을 학생이 선택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여,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자로의 성장을 견인하는 측면도 주목해야 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중심·과정중심인 2015·2022 교육과정 철학과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학종과도 가장 궁합이 잘 맞는 제도라는 것도 희망적 요소다.

미래 직업세계 변화와 진로·직업 준비¹⁾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김동규



※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미래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큰 기회가 온다.

몇 년 전부터 4차 산업혁명, 디지털화, 저탄소 등의 환경 변화로 산업구조와 직업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가 하루가 멀다하고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과 함께 인공지능전문가, SW개발자, 빅데이터분석가 등의 유망 직종에서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이라는 밝은 전망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의 변화는 당연히 그에 따른 역량의 변화를 동반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뉴스가 확산 될수록 우리의 불안감도 함께 커집니다. ‘내가 희망하는 직업이 미래에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하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지?’ 하는 걱정과 불안이 생겨나고, 혼란도 커집니다. 그러나 미래를 이해하고 잘 준비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큰 변화는 큰 성공을 위한 기회가 될 테니까요.

📺 환경 변화 요인을 아는 것이 미래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진로를 설계하고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직업세계가 어떤 요인에 의해 변화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 직업세계의 변화를 둘러싼 메가트렌드는 크게 인구구조의 변화, 기술의 발전, 글로벌화 등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메가트렌드는 다시 사회(Social), 기술(Technological), 경제(Economical), 환경(Environmental), 정책 및 제도(Political/legal) 등 다섯 가지(STEEP) 영역으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미래의 변화를 체계화하고,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고자 노력한다면 불확실성이 커지는 미래에도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변화와 방향을 이해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쌓이면 여러분의 인생도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Technological	•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화, 1인 가구증가 • 디지털세대 등장(모바일, phono sapiens, 자기표현) • 3D 업종에 대한 청년층의 기피, 외국인 근로자
Economical	• 디지털화, 자동화 : 인공지능, 데이터, IoT, 협동로봇 등 • 산업과 기술의 융복합,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결합(신제조업), 플랫폼기업의 득세
Social	• 자유무역주의 VS. 보호무역주의 • 경제성장, 최저임금, 정년연장, 세대별 고용률 등 • 공유경제, 플랫폼경제, 온디맨드 경제(On-demand Economy)
Environmental	• 기후변화,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 Covid-19 사태
Political / legal	• 작은 정부 부VS 큰 정부 • 원건진료, 공유택시 등 규제완화/강화, 로스쿨 등 제도변화 • 한국판 뉴딜(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림 1] 직업세계를 둘러싼 5가지 환경 요인

1) 본고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내 직업 찾기」(김동규 외, 2018)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편집 및 수정하였음.

미래 직업세계의 5가지 변화

01

정형화된 업무는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빠르게 대체된다.

노동이 기술로 대체된다는 말은 사람이 하던 일의 일부나 전부를 컴퓨터나 로봇이 대신 수행하는 것으로, 그 결과 사람이 불필요하게 되거나 생산성이 향상되어 일자리도 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술 대체 가능성이 큰 직업은 업무(tasks)의 정형화 정도가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창고관리원, 시설안내원, 계산원, 텔레마케터, 제조생산직(조립, 포장, 부품검사) 등과 같이 수행 업무가 일정한 매뉴얼에 따라 규칙적으로 수행하는 비율이 높은 경우,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하는 방식을 학습하여 그대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고급 지식과 기술, 높은 인지력과 창의력이 필요한 업무(연구개발, 디자인, 상담, 기획 등)는 기술 대체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직능수준²⁾이 비교적 낮더라도 고도의 육체적 적응성(Physical adaptability), 정서적 공감력 등 인간적 특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업무 즉, 간병, 개인서비스(미용 등), 레크리에이션 강사 등도 기술 대체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들 업무는 컴퓨터와 기계로 모방하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다만, 일자리 변화는 기술 발전 외 기술 도입에 따른 경제성,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합의 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업 유형	기술 대체 가능성 고(高)	
	단순조립, 제품검사, 계산 및 출납, 요금수납, 경비, 창고관리, 시설안내	금융사무, 회계사무, 법률사무, 중개업, 의료영상 판독
직능 수준	기술 대체 가능성 저(低)	기술 대체 가능성 저(低)
	청소, 간병, 육아, 미용, 레크리에이션 강사, 정육가공(발골), 설비 유지보수	연구개발, 생산·품질관리, 법률/의료 전문서비스, 디자인, 상담, 기획, 컨설팅, 간호

[그림 2] 노동의 기술 대체 가능성 유형

02

직업의 등장과 소멸이 더욱 빨라진다.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 전환은 일자리(Jobs)뿐만 아니라 직업 구조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새로운 기술과 제품, 서비스의 등장으로 새로운 직업이 탄생하거나 사라지고, 기존 직업들의 전문화·세분화가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데이터거래 전문가 같은 신직업이 생기는가 하면, 데이터 사이언티스, 미래차 정비원, 블록체인 개발자, 스마트팩토리 운용기술자 같은 직업들도 전문화·세분화되고 있습니다.

03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혁신기술이 기존 산업과 기술에 융·복합되면서 생산 공정과 장비가 혁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일하는 내용도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부품조립이나 창고관리, 일상적 행정사무 등 단순반복적인 일은 로봇과 무인운반차, 자동화컴퓨터로 대체될 것입니다. 그 대신 근로자는 생산시설의 유지관리나 품질관리, 보수, 데이터 분석, 대인서비스 등 종합적이고 통제적인 일을 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직종에서 로봇과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일반화될 것이고, 근로자들은 업무수행을 위해 각종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장비를 능숙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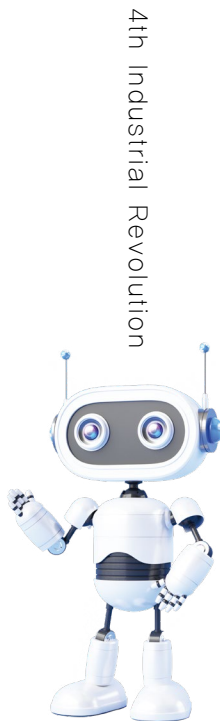
예를 들어, 앞으로는 공장 엔지니어에게 스마트팩토리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생산관리와 품질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더욱 요구될 것입니다. 치과기공과 금형 분야에 3D프린터 도입이 확산할 것이고, 공장에서는 생산직 근로자가 협동로봇과 함께 부품을 조립하는 모습이 일상화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건축가와 자동차 정비원도 VR·AR 장비를 사용하여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직업의 종사자라고 하더라도 업무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에 역량 수준과 임금에 차이가 커질 것입니다.

04

아이디어가 더욱 쉽게 사업화된다.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 창업을 통해 자신의 재능과 노동력을 팔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IT 기술 덕분에 소자본으로 창업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창업 과정도 간편해졌기 때문이지요. 지금은 누구나 집에서 인터넷쇼핑몰(온라인쇼핑몰)을 창업할 수 있게 되었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재능(캐리커처 디자인, 번역, 크리에이터 등)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나 행정 등의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회도 열려 있습니다. 최근에는 3D프린터를 활용하여 디자인 평가를 위한 모형이나 시제품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제작해주는 업체도 등장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창업 지원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가 개설되고 있고, 정부도 청년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 행정적, 금융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청년들은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 직능수준(skill level)은 직무수행 능력의 높낮이를 말하며, 정규교육, 직업훈련, 직업경험 등으로 결정된다.



메이커스페이스란?³⁾

'메이커스페이스'는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펼쳐 볼 수 있는 지역 내 주민, 학생, 전문 메이커, 기업들을 위한 공간이다. '만들고(Making), 배우고(Learning), 공유(Sharing)한다'는 의미의 메이커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메이킹 장비와 공간, 프로그램을 기관과 민간에서 운영한다.

충북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총 14개의 메이커스페이스

중기부 지원	과기부, 문체부, 교육부 지원	민간에 운영
일반/특화/전문랩 9개소	기관랩 4개소	1개소

충북대학교도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전문랩 부문에 최종 선정되어 '충북 PRO 메이커센터'라는 이름으로 개소하였다. 충북 PRO 메이커센터는 전용공간(1,391㎡)과 창업지원공간(2,415㎡), 산업용 장비(38종 55대)를 활용하여 고품질의 시제품 및 초도제품 생산서비스를 유·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05

진로 형태가 더욱 다양화하고 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가치관이 존중받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급속한 사회변화로 직업을 선택하는 방식도, 일하는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정규교육과정 외에 다양한 경로(일경험, 훈련, 자격 등)로 직업세계에 진입하는 사례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력 중심에서 벗어나 직업훈련과 자격증 취득, 다양한 경력이 동등하게 인정받는 사회가 정착될 것입니다. 취업 외에 창업이나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자신의 직업을 개척하는 사람 또한 많아질 것입니다.

▶ 변화하는 미래, 현명한 진로 선택은 어떻게 할까?

일반적으로 진로·직업 선택의 기준으로 일자리 전망, 고용 안정, 고용 평등, 보상, 근무 여건, 발전 가능성, 사회적 기여, 적성과 흥미성 등 8가지를 꼽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8가지 기준에 더하여 '미래 변화 대응성'이라는 한 가지 기준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미래 변화 대응성'은 다음의 2가지 세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하는 일이 자동화, 기계화(인공지능, 로봇)로 대체되어 줄어들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작은가'이고, 다른 하나는 '직업 생활 중 기술발전 등에 대응하여 재교육, 재훈련의 기회가 많은가'입니다.

그러나 이상의 9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직업은 없습니다.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기준을 정한 후 자신만의 유망 직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표 1〉 미래를 준비하는 현명한 진로·직업 선택 기준

나의 희망 직업 : _____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1. 일자리 전망	중사 분야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			
	취업경쟁률이 높지 않다.			
2. 고용 안정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을 할 수 있다. (경력단절 후 복귀가 쉽다, 근로생애 기간이 길다, 고용안정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등)			
3. 고용 평등	성별이나 나이, 인종 등으로 임금, 승진 등에서 차별받지 않는다.			
4. 보상	임금을 본인의 기대 만큼 받을 수 있다.			
	임금 외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근무 여건	법정근로시간 외에 초과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이 많지 않다.			
	재택근무, 근로시간 선택 등 유연근무가 가능하다.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크지 않다.			
	작업환경이 감내할 정도이다. (소음, 냄새, 위험, 먼지)			
6. 발전 가능성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한다.			
	경력을 쌓을수록 자기계발 또는 전문성이 향상된다.			
	승진 기회가 많다.			
	경력을 쌓은 후 다른 직업으로 전직 또는 창업을 할 수 있다.			
7. 사회적 기여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기회가 많다.			
	업무가 타인에 대한 봉사적 성격이 강하여, 그에 따른 만족감이 크다.			
8. 적성과 흥미성	사회적 평판이 높다.			
	나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 볼 수 있는 일이다.			
9. 미래 변화 대응성	내가 흥미를 갖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일이 자동화, 기계화(인공지능, 로봇)로 대체되어 줄어들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작다.			
	직업 생활 중 기술발전 등에 대응하여 재교육, 재훈련의 기회가 많다.			



미래 직업역량을 갖추어 미래 인재가 되자!

기술과 산업이 고도화되고 직업현장에서 수행하는 일의 내용이 바뀌면 필요한 직업능력도 바뀝니다. 앞으로 펼쳐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직업능력이 중요해 질까요? 미래 직업역량에 관한 여러 연구를 종합해 보면, 미래에는 다음과 같은 직업역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01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

디지털 기술이 직업 현장에 확산되면서 기술직이 아니어도 대다수 근로자는 디지털 문해력을 필요 능력으로 요구받게 됩니다. 디지털 문해력은 실제 프로그래밍이나 SW 개발과 같은 전문적인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SW·스마트기기·웹브라우저 등을 활용하여 일상생활과 경제생활 또는 지식 습득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업무에 컴퓨터나 기계를 활용하는 것이 일상화될 것이기 때문에 기계와의 협력 능력도 필요합니다.



02

협업 능력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제품 및 서비스에 수많은 첨단기술이 융합되고, 개발 과정에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는 동시에 타 분야의 지식과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타 분야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03

공감 및 소통 능력

앞으로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는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겠지만, 그럴수록 인간의 고유한 특성과 장점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사람의 감성을 필요로 하거나 감정을 다루는 일 즉 창작, 상담, 설득, 간호·간병, 엔터테인먼트, 미용 등의 개인서비스나 디자인 등에 관련된 역량은 기술로 대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 가치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미래의 역량입니다.



04

창의력 및 융합 능력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 간, 산업 간, 학문 간 융합이 더욱 활발히 일어날 것이고, 산업적, 사회적으로 대단히 복잡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할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더욱 다양해지는 소비자의 욕구에 대응하며,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자신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른 분야를 융합하고, 새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가 더욱 각광 받을 것입니다.

05

창업가 정신

컴퓨터와 인터넷,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모바일 기기, 3D프린터 등의 발전으로 지금 청년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창업이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 정부도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창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청년은 주체적이고 멋진 삶을 살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06

자기주도의 적극적 학습 능력

4차 산업혁명으로 발전하는 지식과 기술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대학에서 배우는 지식과 기술의 수명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의 수명도 길어지고 있어서 평생 동안 더 많은 직업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성공하는 직업인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신기술과 신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등 다양한 학습 방법을 찾아 스스로 학습하는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어요.

Q&A 1



4차 산업혁명 유망직업을 보면, 대부분이 '이과'와 관련된 직업이던데, 앞으로 '문과'와 관련된 직업은 어떤가요?

문학이나 역사학, 심리학과 같은 학문은 인공지능, 로봇 등의 기술에 인간적인 온기를 부여하는 학문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가 세계적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인류 보편적 콘텐츠에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와 정서를 접목하는 기획력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나 서비스로봇, 자율주행차 등의 첨단 분야들도 인문학적 소양에 기반한 창의력과 기획력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콘텐츠기획자, 작가, 서비스기획자, 디지털마케터, 디자이너 등 인문·사회학적 지식에 기반한 창의적 직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인문·사회학적 지식에 IT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직업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나 컴퓨터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코딩 등 기술적 업무는 컴퓨터공학 등 IT분야 전공자가 주로 담당하지만, 사용자(회사)의 업무와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기획하는 일을 하는 컴퓨터시스템설계분석가는 경영, 무역, 회계, 물류 등의 전공자가 많다고 합니다. 이들 전공자들이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VRAR콘텐츠 기획자(PD), 사물인터넷(IoT) 기획 분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민이 있어요.

Q&A 2



장래를 위해 현재 취업이 잘되는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진보로 산업현장과 직업세계가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취업률이 높은 학과가 앞으로도 취업이 잘 될지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1970년대는 화학공학과, 무역학과, 토목공학과, 1980년대는 물리학과, 전자공학과, 1990년대에는 컴퓨터공학과, 신문방송학과, 2000년대는 생명공학과, 한의학과 등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처럼 산업구조의 고도화, 사회 및 가치관의 변화, 정부의 산업정책 등에 따라 유망학과도 변해 왔지요.

하지만, 사회에서 필요한 기반 학문은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이 꾸준한 수요가 있습니다. 유망직업이라고 해도 필요한 인력수요가 적거나,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지 않음에도 분위기에 휩쓸려 전공을 선택하고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후회를 하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 자신이 열정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고민이 있어요.

Q&A 3



앞으로도 출신 대학이 직업적 성공에 영향을 크게 미칠까요?

예전에는 소위 명문대학 출신이라는 점이 취업과 승진에 큰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제 실력에 상관없이 출신 대학으로 그 사람을 능력을 판단하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앞으로는 실제 업무수행 능력이 더 중요해질 겁니다. 직업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내용과 필요한 지식·기술이 빠르게 변화할수록 대학에서 배운 지식의 유효기간이 더욱 짧아질 것입니다. 기업들도 “입사 지원자가 실제 그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중요한 채용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단순히 출신 대학 보다 지원하는 분야에 적합한 전공인지, 지원 분야와 관련된 경험이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어요. 공공기관들도 블라인드 채용이나 일학습병행제, 과점평가형 자격⁴⁾ 등을 통해 현장 능력중심의 인재 채용과 인재 양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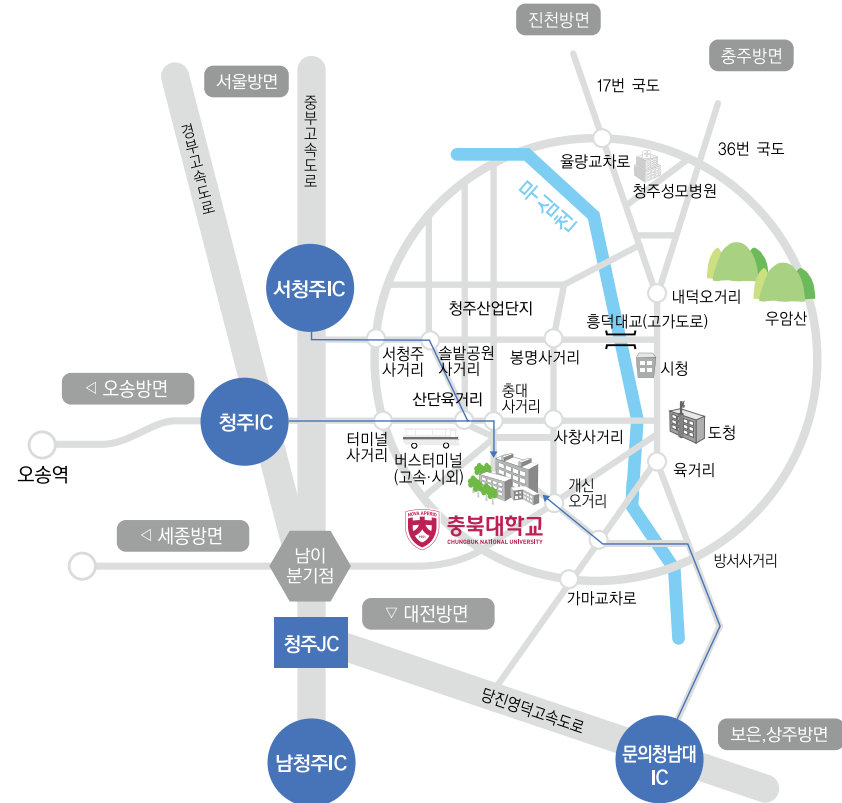
4)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으로 설계된 교육·훈련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고
내·외부 평가를 거쳐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 (<https://c.q-net.or.kr/> 참조)

충북대학교 안내

1. 오시는 길

교통별	출발지	도착지	목적지
고속버스	서울, 동서울, 상봉, 대구, 부산, 광주고속터미널	청주고속버스터미널	▶ 거리 : 약 4km ▶ 택시요금 : 약 4,000 ~ 5,000원 정도 ▶ 시내버스 : 기본요금(도청, 시청, 상당공원, 미평행)
시외버스	각 도시 시외버스 터미널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철도	경부선, 호남선 충북선 KTX	조치원역(세종시) 청주역 오송역	▶ 거리 : 약 15km ▶ 역 앞에서 시내(좌석)버스 10분 간격으로 출발
개인차량	◎ 경부고속도로 이용 시 - 청주IC 나와서 왼쪽 청주방향 6.5km 이동 → 산업단지육거리 → 충북대학교 방면 우측도로 500m 이동 → 충북대 정문 도착 ◎ 중부고속도로 이용 시 - 서청주IC 나와서 좌회전(청주방향) 1.5km 이동 → 솔밭공원 사거리 → 시청 방면으로 우회전 200m 이동 후 좌회전 → 1.5km 이동 → 산업단지육거리 → 충북대학교 방면 우측도로 500m 이동 → 충북대 정문 도착 ◎ 당진영덕 고속도로 이용 시 - 청주JC → 경부고속도로 → 남이JC에서 오른쪽 중부고속도로 → 서청주IC 나와서 좌회전(청주방향) 1.5km 이동 → 솔밭공원 사거리 → 시청 방면으로 우회전 200m 이동 후 좌회전 → 1.5km 이동 → 산업단지육거리 → 충북대학교 방면 우측도로 500m 이동 → 충북대 정문 도착 - 문의청남대IC 나와서 우회전 청주방향 5km 이동 → 고은사거리 → 청주방향으로 좌회전 → 4.9 km 이동 → 방서사거리 청주방면으로 좌회전 4km 이동 → 고가도로 오른쪽 이용 → 개신오거리에서 충북대병원 방면으로 좌회전 → 충북대 학교 동문 도착		

2. 약도



3. 캠퍼스 안내도

